

2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7017.91 (+10.19)		834.38 (-1.89)
	금리 (미국 9년)		환율 (한-달러)
	4.020 (-0.036)		1361.05 (-19.95)

소상공인 명절자금 103조 푼다… 만기 연장·우대금리 제공

중소기업 운전자금 79.6조 준비
4대 은행, 내달 16일까지 특별대출
신규대출 각 6조, 만기연장 9조 제공

금융권이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102조6000억원을 푼다. 명절 전후로 상품 확보와 상여금 지급 등을 이유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과 대출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총 79조6000억원 규모의 금리우대 대출 및 만기연장을 공급하며, 정책금융기관도 총 23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 은행권, 79조6000억원 공급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총 79조6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이 74조원(신규 24조5000억원·연장 36조원)을 공급하고, 5대 지역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도 4조1000억원(신규 2조5000억원·연장 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농협은행·수협은행도 총 14조5000억원(신규 5조5000억원·연장 9조원)을 공급한다.

4대 은행은 공급 규모와 운영기간, 금리 인하폭을 통일했다. 4대 은행은 오는 10월 16일까지 특별대출을 운영하며, 각 6조1250억원의 신규 대출을 공급하고 9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제공한다. 또한 신규 대출에는 거래 실적 등을 고려해 최대

1.5%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제공한다. 대출 및 만기연장은 각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신규대출 5조원 및 만기연장 8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폭은 최대 2.3%p로 차등 적용된다. 수협은행은 10월 30일까지 특별대출을 운영하며, 신규대출 5000억원 및 만기연장 5000억원을 공급한다. 금리는 최대 1.2%p 인하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특별 대출을 운영한다. 공급 규모는 각 은행이 신규대출 4000억원 및 만기연장 4000억원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폭은 최대 1.0%p다.

iM뱅크는 오는 10월 8일까지 특별 대출 기간을 운영한다. 신규대출 5000억원과 만기대출 5000억원을 공급하며, 우대금리는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을 종합해 적용한다.

광주은행은 9월 30일까지 신규대출 5000억원과 만기연장 5000억원을 공급한다. 전북은행은 오는 10월 6일까지 신규대출 2500억원 및 만기연장 25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대출을 운영한다. 우대금리는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제주은행도 명절자금 대출을 운영한다. SC제일은행과 제주은행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한국씨티은행은 9월 23일까지 신규대출 및 대출연장 신청을 받는다. 대출 시 금리는 거



차레상 올릴 싱싱한 문어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2일 대구 북구 매천수산물시장에서 한 시민이 차레상에 올릴 문어를 살피고 있다. /뉴스시

래 실적 및 신용등급 등을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중 부동산 잔금이나 전세금, 기업 간 결제 등 거래를 이체해야 하는 경우 미리 이체 한도를 높이거나 자금을 인출해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책금융, 23조원 공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위한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신규 대출 및

만기 연장을 도합해 총 23조원 규모다.

산업은행은 오는 10월 12일까지 2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과 1조50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공급한다. 금리 인하폭은 최대 0.4%p다.

기업은행도 같은 기간 동안 명절자금 대출을 운영한다. 공급 규모는 신규대출 3조7000억원 및 만기연장 5조5000억원이다. 금리 인하폭은 최대 0.3%p까지 적

용한다.

신용보증기금도 10월 12일까지 특별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 2조1000억원, 만기연장 8조원 규모다. 기존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과 비교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며, 보증료나 보증비용 등도 우대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애플, AI서버 개발… ‘AI 추론’ 저변 확대

‘M8 울트라’ 탑재 기업용 AI서버 검토
삼성·SK ‘추론 메모리’ 시장 새 기회

애플이 자체 칩을 활용한 기업용 인공지능(AI) 서버 개발을 검토하면서 AI 추론 인프라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AI 서버 사업자가 다양해지면서 고용량·저전력 메모리의 탑재 수요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론용 메모리 사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차세대 자체 칩인 ‘M8 울트라’를 탑재한 기업용 AI 서버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M8 울트라2개를 탑재한 기본형과 4개를 탑재한 고성능형이 거론되며 AI 개발업체와 기업, 정부 기관 등이 주요 고객으로 예상된다. 출시 목표 시점은 2029년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애플이 검토하는 서버는 대규모 AI 모



Chat GPT가 만든 애플의 기업용 AI 서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을 형상화한 이미지.

델을 학습시키는 용도보다 이미 학습된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서 구동하는 추론에 초점을 맞춘다. 자체 칩을 서버 단위로 연결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고속 인터커넥트 기술 ‘NV링크 퓨전’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I서비스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의 용량과 전력 효율도 중요해지고 있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늘면서 이를 임시 저장하는 ‘KV 캐

시’의 용량도 커져 고용량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추론 시장 확대에 대응해 저전력 D램 기반의 서버용 메모리 모듈 ‘SOCAMM2’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SOCAMM2는 높은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양산과 판매를 시작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4월 192기가바이트(GB) SOCAMM2 양산에 돌입했다. SK하이닉스 제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을 겨냥해 개발됐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AI 인프라에 대응한 메모리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AI 가속기 위에 HBM을 수직으로 쌓는 ‘zHBM’을 공개했다. 연산 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줄여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높이는 구조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2000억弗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

野 ‘상업적 합리성’ 졸속처리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이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확정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수천억원의 재원이 소모되는 대미투자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을 앞세워 졸속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산업부)는 2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각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비공개로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전략적 산업 분야 등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의 민간투자, 보증, 선박 금융 등을 포함한 투자를 할 예정이다.

이날 비공개 보고와 상임위 간사의 브리핑에 따르면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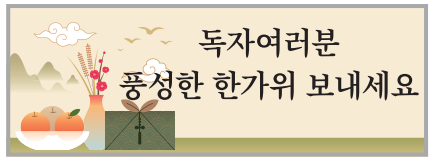
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다. 2·3호 사업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전체 설비용량 6.3GW(기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이번 사업은 총 투자비가 223억달러에 달하며 2032년까지 분납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2호 투자 사업인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과 관련해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인수를 확보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김경관 산업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5~10%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pth728@



metro



▲국방부 “DMZ 폭발, 유엔사 현장조사 요청으로 수색로 개척하다 발생”
▲野 유영원 “DMZ 폭발 사고, 북한 목함지뢰 의심…의도적 매설 가능성” /사진 뉴스시

▲추미애 “재정위기 논의, 이재명·김동연 까발리기 아냐”
▲조국, 송영길 겨냥 “변희재 손잡은 송영길, 친일파 행동 가짜워”

▲靑 “농지 전수조사, 투기만 잡을 것…농지 팔기 싫다면 안 팔아도 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헌법적 근거 없어” 25일 만에 거부

재계, 추석연휴 경영구상 전망... AI·반도체 등 미래사업 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반도체 사업 점검... 해외경영 가능성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 구상

최태원 SK그룹 회장

AI·반도체 중심 그룹 성장동력 점검

구광모 LG그룹 회장

그룹 AX 등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

재계 총수들이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아 휴식과 함께 하반기 경영 구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미래 성장사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하반기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 경영전략을 가다듬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추석 연휴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각 그룹이 올해 하반기 핵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총수들도 연휴 기간 주요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확대가 주요 경영 현안이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AI반도체 경쟁력 회복과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 회장이 글로벌 고객사 및 사업 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현장 경영에 나설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 논의도 이어질 수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대응

과 함께 자율주행·로보틱스·수소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연구개발과 양산 전략을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 대응책을 가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대차는 올 하반기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인 GV80 하이브리드와 초대형 플래그십 전동화 SUV GV90, 글로벌 시장 주력 모델인 투싼 신형 등의 출시도 앞두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SK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점검에 나선다. SK하이닉스의 HBM 등 AI 메모리 경쟁력 강화와 함께 그룹 차원의 AI 사업 확대, 에너지 사업 재편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추석 연휴를 활용해 하반기 투자와 사업 포트폴

리오에 대한 경영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그룹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I)과 미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계획을 구상할 방침이다. LG전자의 AI·가전 및 전장 사업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경쟁력 강화 등 주요 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성장 전략이 핵심 과제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에게 명절은 단순한 휴식 기간이라기보다 그동안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하반기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주요 총수들도 미래 성장사업과 투자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LG전자·엔솔, 엔비디아 AI 팩토리 생태계 합류

LG전자 CDU·LG엔솔 BESS

‘DSX 레디’ 제품·파트너 선정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냉각과 전력 솔루션을 앞세워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팩토리 생태계에 합류했다. AI 서버의 고집적화로 데이터센터의 발열과 전력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사는 관련 솔루션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의 대용량 냉각수 분배장치(CDU)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가 엔비디아의 ‘DSX 레디(DSX Ready)’ 제품 및 파트너로 각각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DSX 레디는 엔비디아의 ‘DSX AI 팩토리 플랫폼’에 적용되는 컴퓨팅·네트워킹·전력·냉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한 제품과 솔루션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AI

팩토리는 데이터 수집부터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의미한다.

LG전자는 2.5MW(메가와트)급 CDU로 엔비디아의 DSX 레디 승인을 획득했다. CDU는 AI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액체냉각 핵심 설비다. LG전자의 2.5MW급 CDU는 약 120kW급 최신 AI 서버 랙 20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해 냉각할 수 있는 수준이다.

LG전자는 지난 7월 600kW급에 이어 이달 1MW급 CDU에 대해서도 엔비디아 규격 승인을 받았다. 이번 2.5MW급까지 제품군을 확대하면서 소·중·대용량 CDU 라인업을 확보했다. 향후 4MW급 대용량 CDU까지 엔비디아 규격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배터리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DSX 레디의 BESS와

트너로 선정됐다. 전 세계에서는 3개 기업 이름이 올랐다.

승인 제품은 고용량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적용한 ‘JF2 AC 링크(Link)’다. AI 서버의 전력 사용량 변화에 맞춰 배터리 충·방전을 조절해 전력 부하를 완화하고, 외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모듈형 설계를 적용해 데이터센터 규모와 전력 수요에 따라 설비를 확장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5개 ESS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현지 수요에 대응한다. 올해 말까지 북미 ESS 생산능력을 50기가와트시(GWh)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국 ESS시스템통합(SI)법인 버테크를 통해 설계부터 설치·운영·유지보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현대차그룹, ‘아틀라스’ 상용화 속도낸다

(휴머노이드 로봇)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 운영

현대자동차그룹이 휴머노이드로봇 ‘아틀라스’의 생산과 자동차 제조 현장 투입을 위한 상용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로봇 학습·검증 거점을 마련한 데 이어 2028년부터 현장 배치를 본격화하고 연간 3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21일(현지시간) HMGMA에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RMAC은 아틀라스가 실제 자동차 생산환경에서 작업을 학습하고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다. 현재 물류 작업 준비와 자동차 부품 조립 순서에 맞춰 배치하는 서열화 작업 등을 학습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올해 초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HMGMA에



보스턴다이나믹스 아틀라스가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에서 자동차 제조 작업을 학습하고 있다.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체제 구축과 함께 현대차·기아 글로벌 사업장에 아틀라스를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RMAC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 6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RMAC은 올해 말까지 약 10배 규모로 확장되고, 2027년에는 HMGMA 부지 내 별도 시설로 확대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뛰는
고양특례시의회

www.goyangcouncil.go.kr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거래시간 늘린 애프터마켓 1.1조 거래… 外人 참여는 6.7%

14~18일 일평균 5485만주 거래
정규장 거래대금의 4.5% 추가
개인 비중 90.4%로 거래 주도
外人 유입 효과는 아직 제한적
변동성 완화 속 수급전환 여부 주목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이 출범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유입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9월 들어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나란히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애프터마켓 거래대금에서도 개인 비중이 90%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변동성 진정과 개인 매도 전환 등 과거 외국인 매수 국면에서 나타났던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들어 코스피에서 17조8895억원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12조6646억원을 순매도했다. 사실상 9월 코스피를 지탱한 것은 기관과 기타법인으로 각각 5조원, 24조원 넘게 사들였다.

다만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로 지난 14일부터 운영된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에 일평균 1조1000억원의 거래대금이 몰리는 등 투자자들의 높은 선호가 나타나고 있다.

자 선호가 크게 확대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애프터마켓이 운영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5485만주, 거래대금은 1조1467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정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25조5433억원으로, 정규장 거래대금의 4.5%가량이 추가된 셈이다.

거래대금 기준 투자자 비중은 개인이 90.4%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6.7%, 기관은 2.6%로 집계되면서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 효과

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연초 거래소는 글로벌 투자자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 등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24시간 거래 체계 구축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거래시간 연장으로 접근성이 가장 크게 개선될 주체로 꼽힌 외국인의 애프터마켓 수급을 코스피 종목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정규장 대비 순매수·순매

도 규모가 1~2%가량 늘거나 줄어드는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최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과거 외국인 대량 매수 사례에서 발견되는 조건은 크게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 고점 후 하락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 약화 ▲새로운 이벤트 등장 등을 꼽았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대량 매수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보다 변동성이 진정되고 개인의 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매수 근거가 더해졌을 때 두드러졌다”며 “이제 주목할 것은 매수를 자극할 재료이며, 10월 초까지 미중 정상회담, 마이크론 2026회계연도 4분기 실적,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등이 연이어 예정돼 있다”고 짚었다. VKOSPI 지수는 이미 7월 고점 89.3에서 40 초반 수준으로 내려왔고, 개인 투자자도

이달 들어 순매도로 전환했다.

메모리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성장 전망이 시장 눈높이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도 변수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메모리 가격(P) 상승뿐 아니라 출하량(Q) 확대에 대한 언급도 중요하다”며 “가격과 함께 실제 수요와 출하도 늘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이익 성장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기대가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이란 전쟁이 추가로 격화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중동전쟁 긴장감이 고조될 때마다 유가와 금리 불안이 시장은 물론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을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수급의 키가 외국인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중동전쟁의 행방이 외국인 수급에도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원매자 50곳 두드린 홈플러스 재매각 성패 가를 ‘정상화 비용’

본사·온라인·대형마트 67곳 매각
통매각 원칙 속 분리매각도 검토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잠재 원매자 50여 곳에 인수의향을 타진하며 재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와 본사·온라인 사업을 통째로 매각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원매자의 자금력과 사업 전략에 따라 자산이나 사업부를 나눠 파는 분리매각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상품 공급망 복구와 운전자금 수월, 이탈한 테넌트 회복 등 인수 이후 정상화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한 만큼 실제 원매자 확보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일PwC는 최근 국내외 전략적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 등 잠재 원매자 50여 곳에 티저레터를 발송했다. 매각 기본 대상은 본사와 온라인 사업 부문, 현재 영업 중인 대형마트 67개 점포다. 폐점 점포 중 회사가 소유한 19곳의 자가 부동산은 별도로 매각해 채권 변제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번 재매각의 핵심은 ‘거래 성사’를 위

한 유연한 매각 구조다. 기본 방침은 전국 단위 영업망과 물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67개 점포 통매각이지만, 대규모 자금을 한 번에 투입할 원매자를 찾기 어렵다면 자금력과 사업 전략에 맞춰 자산이나 사업부를 쪼개 파는 분리매각 가능성도 열어뒀다. 과거 매각 실패 경험을 거치며 매도자가 정한 틀을 고집하기보다 실제 인수 의지를 지닌 원매자에 맞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홈플러스는 고정비 절감과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오는 30일부로 문화센터 운영을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운영자금 고갈로 인한 임시휴업 이후 이어진 무기한 휴업을 끝내 사업 철수로 매듭지은 것이다. 문화센터 인력은 면담을 거쳐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며, 잔여 수강료 환불도 진행 중이다.

실제 매각 완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장에서는 단순 인수 가격보다 인수 이후 투입될 정상화 비용이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SK하이닉스, HBF·PIM 등 차세대 메모리 공개

>> 1면 ‘애플, AI서버 개발…’서 계속

고성능 낸드를 3차원으로 집적한 ‘3D NAND-O’와 CXL 기반 메모리 등 AI 시스템의 데이터 이동 효율을 높이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에이전틱 AI 확산과 AI 인프라 투자에 따라 서버 D램과 기업용 SSD(eSSD), HBM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HBM4와 DDR5, SOCAMM2 등 고부가 제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AI 인프라 서밋 2026’에서 고대역폭 플래시(HBF)와 프로세싱인메모리(PIM), SALT-KV 등 추론 시대를 겨냥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공개했다.

김형준 차세대기술개발본부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처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2027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및 과제 모집

사업 목적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강화

사업 내용 중소기업 간 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판로개척 과제(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동경비 지원

구분	1단계(사전준비)	2단계(현지파견)	3단계(사후관리)
핵심과제	해외마케팅·홍보, 바이어 B2B 매칭 등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파견	바이어 국내 초청, 팸투어, 네트워킹 등
연계과제	교육·컨설팅, 마케팅·홍보, 프로모션, 부대행사 등 자율 기획		

※ 핵심과제 중심 단계별 연계과제 기획 다각화 시 선정 우대

사업 기간 2027년 1월 ~ 2028년 3월

사업 규모 00개 내외 * 선정규모는 추후 확정 예정

신청 자격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 수출 유관기관 등

지원분야·내용 일반(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 수출컨소시엄 과제

지원 항목 전시·상담장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공동경비 지원 * 추진단계별 70% 이내 지원

선정 및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및 선정위원회 구성, 서류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최종지원사업 선정

접수 기간 2026. 9. 16(수) ~ 10. 7(수) 18:00까지

신청 방법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s.go.kr/sme-expo)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모집공고 참조(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공지사항)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글로벌성장팀 02) 2124-3291~4



중소벤처기업부

KBIZ 중소기업중앙회

금융취약성 9분기째 상승... 3분기도 상승 흐름

가계신용 증가·주택가격 상승 영향
FVI, 장기 평균인 46.5와 같아져
금융불안지수, 19.5로 '주의단계'
'금리인상' 시차두고 FVI 낮출 듯

국내 금융시스템이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대체
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다만 중장
기 금융불균형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
수(FVI)는 9분기 연속 상승해 장기평균
에 도달했고,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22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
고서에 따르면 FVI는 2024년 1분기 37에서
올해 2분기 말 46.5까지 9분기 연속 올랐
다. 가계신용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를 끌어 올리면서 장기평균(46.5)과 같
은 수준에 도달했다. 금융불안지수(FSI)도
7월 19.3에서 8월 19.5로 소폭 올라 주의단
계(12 이상 24 미만)에 머물렀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설명회
에서 3분기 수치는 12월 보고서에서 다시



장정수 부총재보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지표로
는 2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
의 부동산대책, 추가 조정 과정에서의 레
버리지(차입) 축소는 추가 상승을 제약
할 것으로 봤다.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FSI를 높일 수 있지만 시차를 두고 FVI
와 금융불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신용은 2분기에 전분기보다 1.3%
증가한 2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88.1%에서 올해 1분기
85.3%로 낮아졌다. 장 부총재보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3% 인פק이고 명목 G
DP가 두 자릿수 증가한다는 전제에서 이
비율이 2분기 81%대, 연말 70% 중후반
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비율 하락은 부채 축소보다 명
목 GDP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 소득 개
선이 차주별로 고르게 나타나지 않은 데
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대
출 증가 압력도 남아 있다.

장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비율이 압제
수준이나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
더라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취약부문의 위험도 커졌다. 기업 연체율
은 비은행권과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일부 비은행권의 유동성비율도
낮아졌다. 한은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이 큰 비은행권의 차
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통화정
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 불균형 축적 우려를 낮춰야 한
다"며 "금리 상승 과정의 금융불안은 금
융·재정정책을 통한 정책 공
조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연체차주 지속률 80% 은행권 부실 '경고등'

연체 중인 자영업자 차주 10명 중 8명
은 한 분기 뒤에도 연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자영업
자는 기존 연체의 장기화와 신규 연체 유
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12.71%까지 높아졌다.

22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
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지속률은 80.9%로 지난해 말 78.4%
보다 2.5%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1분
기에 연체했던 자영업자 차주의 80.9%가
2분기에도 연체를 지속했다는 의미다. 취
약자영업자의 연체지속률은 82.3%로 비
취약 차주(78.0%)보다 높았다.

새로 연체에 빠지는 취약차주도 늘었
다. 전분기 비연체 자영업자 가운데 2분기
연체로 전환된 비율은 전체적으로 0.90%
였다. 비취약차주의 연체전입률은 지난해
말 0.72%에서 0.60%로 떨어졌지만 취약
차주는 3.17%에서 3.60%로 상승했다.

한은, 2분기 자영업자대출 연체지속률
지난해 말 78.4% 보다 2.5%p 상승

한은은 취약차주가 상환 여건 악화 시
연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정상화에
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
했다.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98조5000
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6000억원 늘
었다. 전체 금융권 기업·가계대출 합계의
28.2%에 해당한다. 차주 수는 321만2000
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1인당
평균 대출은 3억4200만원으로 소폭 증가
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는 41만100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7000명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도 같은 기간 114조6000억원에서 119조
2000억원으로 약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1.99%로 지난
해 말 1.86%에서 상승해 장기평균인 1.
60%를 웃돌았다. 비은행권
연체율은 3.86%, 취약 자영
업자 연체율은 12.71%에 달
했다.

/김주형 기자



metro

기준금리 인상 충격... 가계·기업 이자 7조 늘어난다

가계 3.3조, 기업 3.6조 이자 부담
은행 연체율 15개월 뒤 가장크게 반응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p)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약 7조원 늘어난다는 것으로 추산했다. 과
거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 가계·기업대출
연체율이 약 15개월 뒤 가장 크게 반응했
지만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은 9개월
전후에 충격이 집중돼, 금리 상승의 부담
이 약한 고리에 먼저 번질 수 있다는 분석
이다.

22일 한은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
를 각각 0.25%p 인상했다. 금리 인상은
차입 수요와 위험 선호를 낮춰 가계부채

와 주택가격 등 금융불균형을 완화하지
만 차주의 이자 부담과 금융기관의 신용
손실 위험을 높이는 양면성을 지닌다.
단기적으로 금융불안지수(FSI)를 높일
수 있지만 시차를 두고 금융취약성지수
(FVI)를 낮출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
이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설
명회에서 "기준금리 0.25%p를 기준으로
가계는 약 3조3000억원, 기업은 3조6000
억원 등 총 7조원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
난다"고 말했다.

다만 7조원은 금리 0.25%p 변화에 대
한 대략적인 시산이다. 이를 최근 누적 인
상 폭에 단순 적용해 실제 이자 부담이나
향후 연체율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설

명이다. 대출금리의 전가 속도와 경기,
차주의 상환능력, 정부 지원 등에 따라 결
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의 충격은 시차를 두고 나타
난다. 신규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지표
금리 상승을 빠르게 반영하지만 기존 대
출을 포함한 잔액 기준 금리는 금리 재산
정 시기 등에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 과
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약 5개월 뒤,
은행 연체율은 약 15개월 뒤 가장 크게
반응했다.

취약부문은 평균보다 충격이 빨랐다.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은 기준금리 인상 약 9개월 전후에 가장
크게 반응했다. 이는 이번 7·8월 인상의

영향이 특정 시점에 그대로 재현된다는
예측이 아니라 2012년 1분기부터 올해 2
분기까지의 자료에서 확인된 과거 평균
적인 최대 반응 시차다.

금리 상승을 버틸 완충자산이 부족한
저소득 가구는 더 취약하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소득 하위
20% 가구 가운데 47.5%는 향후 1년 내
금리변동에 노출된 부채가 예·적금 등 이
자부 자산보다 많았다. 이들 가구의 처분
가능소득 대비 이자수지 비율은 -14.0%
였다. 이자비용이 이자수입보다 큰 만큼
금리가 오를수록 가처분소득
이 더 압박받을 수 있다는 의
미다.

/김주형 기자



metro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우주강국을 향한 도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과 기술과 산업이 연결되는 곳, 우주항공복합도시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 우리를 위한 든든한 포용금융 안전망
우리포용금융 플랫폼
36.5도
사용설명서 」



“우리포용금융 플랫폼이 무엇인가요?”

당신의 마음을 제일 잘 헤아리는 우리

불안한 마음에 더해 여러번, 여러곳에서
알아봐야 했던 번거로움. 우리가 제일 잘 알기에

금융 소외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금융지원이 필요할 때 다양한 포용금융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당신에게 맞춤 금융을 제공하는 우리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고객도 **한번의 조회**로
우리금융그룹(은행,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제휴사 등 **상품 추천에서 비교까지**



“어떻게 이용하죠?”

36.5°C의 온기로 더 쉽게 만나는 우리

우리WON뱅킹 앱에서 바로 신청하고
AI 챗봇으로 부담 없이 상담해보세요



모두가 꿈 앞에서 소외되지 않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금융 세상
우리은행이 앞장서겠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포용금융
36.5도
바로가기

포용금융 관련 문의처 : 고객센터(우리은행 1588-5000, 우리카드 1588-9955, 우리금융캐피탈 1544-8600, 우리금융저축은행 1599-0038. 평일 09:00~18:00)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4838(2026.05.28~2027.05.26)

李 대통령, 유엔서 ‘북핵 해법’ 제시… 트럼프와 접촉 주목

기조연설서 한반도 평화 해법 설명
‘중단→감축→폐기’ 접근법 제안
한미정상 별도 회담 일정 미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81차 유엔(UN)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22일 취임 후 두 번째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 한반도 평화 해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미(對美) 투자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공군1호기는 이날 오후 5시45분쯤 미국 뉴욕 존 F.케네디(JFK)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이튿날인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 참석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했다. 이번에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은 ‘E·N·D 이니셔티브’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는 보다 발전·구체화한 방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 앞서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수십년간 이어진 대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대가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북핵 해법을 제안했다.

NYT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

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차피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추려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무기 생산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다.

같은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도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일단 북핵 추가 생산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미국 순방 중 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예정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별도로 접촉할 예정이다. 양 정상 간 만남 일정은 확정된 바 없지만 정상 리셉션을 비롯한 여러 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대미투자 협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툭다운’ 방식의 담판 가능성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특히 대미 투자 협상은 막판에 최종 합의를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이 대통령이 전투 병력 파병에 명확히 선을 그었기에, 조우가 성사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밝힌 ‘군사적 기여 방안’은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NYT 인터뷰에서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AP 인터뷰에선 “아테만만에 배치된 해군 부대의 작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장동혁 “李 정권, 민주주의·법치 무너뜨려”

〈국민의힘 대표〉

국민 보고대회 열고 대통령 정조준
“공소 취소 아니라 재판 재개 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나가라, 내려오라”며 퇴진을 요구했다. 나아가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 재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기본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은)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부를 장악했다”며 “이제 하다 하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제청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법부를 대통령의 발아래 두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2차 개각을 두고는 “인사가 만사인데 이재명 정부는 인사로 모든 일을 망치고 있다”며 “그 모든 뒤에 경기성남 라인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현지누나가 아니라 훈식이형만 쫓아냈다”며 “이제는 현지누나를 쫓아내야 한다. 경기성남 라인을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도 거듭 요구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로 국민의 통장 54조원이 녹아내렸다”며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가 결정했는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또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답했다”며 “우리는 그 누군가가 이 대통령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만약) 아니라면 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가격 평탄화라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10%로 평탄화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김민석, 민생·전작권·동물정책 ‘TF’ 시동

〈민주당 대표〉

TF·위원회 발족·출범식 연속 참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 약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동물·전작권환수·격차 해소 등을 다루는 TF(태스크포스) 발족식에 모두 참여하며 민생·정책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 대표는 이날 동물과더불어TF(태스크포스), 전작권환수추진단, AI시대 품격 사회·격차해소 민생안정 추진위원회(품격민생위)의 출범식과 발족식에 참석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동물과더불어TF는 국회부의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전작권환수추진단은 4성 장관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품격민생위는 김 대표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상임고문을 맡았다.

김 대표는 민생안정추진위 발족식 인사말에서 “메가12라는 우리의 구조와 방향을 제시하는 TF가 있고, 나머지는 비교적 단기 속전속결형 미니TF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정점이자, 지향이자, 본령이 오늘 출범하는 이 품격민생위원회”라고 강조했다.

품격민생위엔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위원회 산하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채무부담 안정, 청년고용·주거 안정, 법·제도 개선, 소상공인 민생안정 등 조직을 두고 민생 현안 정책과 입법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전작권환수추진단 발족식에선 전작권환수가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 때에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제력의 측면에서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 협력 하에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적절하고도 잘 준비된 시기에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물과더불어TF 출범식 인사말에선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출발점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동물과 더불어TF가 어떤 주제를 어떤 순서로 다루야 하는가가 제일 고민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靑 “헌법 위배… 깊은 유감”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고 노태와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노태와 전 대법관이 퇴임(2026년 3월 3일)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0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격양된 반응이 나왔다. 김민

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여전히 남아 있는 반(反)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 사고”라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원들도 성명문을 통해 “윤석열의 12·3 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성토했다. /서예진 기자

李, 이형일·강신철·홍지선 임명안 재가

국회서 이소영 청문보고서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이날 국회에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소영 후보자 임명안까지 재가되면 이재명 정부 2기 내 각 지명자 6명 중 4명이 임명된다.

유엔(UN)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21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이 대통령

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세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토교통위는 여야 합의로 이형일 후보자와 홍지선 후보자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고, 국방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강신철 후보자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소영 중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견 없이 의결했다. /서예진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기업이 도전을
망설이지 않도록

신한금융그룹이 금융의 청신호가 되겠습니다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



생산적·포용금융
20조원 지원
'26년 7월 기준



국가기반산업·핵심산업
성장자금 공급
금융주선 2.8조 | 펀드 1.2조
대출 3,250억 * 국민성장펀드, 벤처펀드 등



지역 기업 성장 지원
신한SOL클러스터
수원·광주·부산 개소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그룹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기차역 등서 신권 교환하세요”

주요은행, 오늘부터 이동점포 운영
신권교환·ATM 이용 등 금융업무
공항내 은행 환전소 연휴내내 오픈

은행권이 귀성객이 집중되는 오는 23~24일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역 거점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 교환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이 가능하다. 주요 공항에서도 국내외 여행객을 위해 환전소를 휴무 없이 운영한다.

◆ 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주요 은행들은 차량 귀성객의 금융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은 23~24일 양일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동점포에서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23~24일 이틀 동안 서해안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출국장.

/인천공항공사

고속도로 하행선 화성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연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신권교환 및 ATM을 이용한 금융업무를 제공한다.

하나은행도 23~24일 양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만남의광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운영시간내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23~24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출점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신권교환 및 ATM 이용 거래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23~24일 양일간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ATM을 이용하거나 신권을 교환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오는 23일 하루 동안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덕평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설치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다.

BNK경남은행은 오는 23~24일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영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양일간 신권교환 및 ATM 금융업무를 운영한다.

전북은행은 23일 하루 동안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마곡사지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다.

◆ 기차역·공항·관광지 이동점포 운영
i뱅크는 기차로 이동하는 귀성객을

위해 서대구역·동대구역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두 이동점포 모두 23~24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지역 축제인 '영광 상사화 축제'에 이동점포를 지원한다. 이동점포는 24~27일에 걸쳐 4일 동안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업무를 진행한다.

연휴 기간 동안 입·출국하는 고객을 위해 공항내 은행 환전소도 휴무 없이 운영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은 인천공항에서 환전소를 휴무일 없이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김포공항 및 청주은행 출국장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부산은행과 i뱅크도 김해공항, 대구국제공항에서 각각 환전소를 휴무 없이 운영한다. 제주은행도 제주국제공항 환전소를 연휴기간 내 운영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고신용자 5명 중 1명, 은행 신용대출 '거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규제 강화
상반기 KB국민 등 시중은행 3곳
신용 900점 신용대출 거절률 19.7%
2021년 6.6%... 5년새 3배 급증

은행 신용대출 시장에서 '신용점수 900점'의 문턱이 무너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출이 무난했던 고신용자조차 최근에는 5명 중 1명꼴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거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6.6%에 불과했던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거절 비중은 최근 20% 안팎까지 치솟았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신용점수 상향 평준화, 이른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높은 신용점수가 대출 승인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점수 900점 이상 차주의 신용대출 신청 거절률은 19.7%로 집계됐다. 2021년 6.6%에 불과했던 거절률이 5년 새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9%였던 거절률은 올해 상반기 19.7%로 6.8%포인트 뛰었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고신용자의 대출 문턱까지 높은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



Chat GPT가 생성한 이미지. 고신용자 5명 중 1명꼴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거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하기 위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점수가 높더라도 소득과 기존 부채, 상환능력 등을 보다 까다롭게 따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는 만큼 과거보다 대출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 같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고신용자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점수의 상향 평준화, 이른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한승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

기 신용평가 대상자 가운데 신용점수 900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8.1%에 달했다. 사실상 절반이 고신용자로 분류되면서 높은 신용점수만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가려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은행들이 소득과 부채 수준 등 다른 심사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따지면서 900점을 넘고도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차주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마저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계부채 조이기가 금융권에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Sh수협은행, 차기행장 추석 이후 선출

차기 수협은행장 선임 절차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차기 행장 후보가 신학기 현 수협은행장과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압축된 가운데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행추위는 차기 은행장 선임 논의를 추석 이후에 다시 재개기로 했다.

최종 은행장 후보를 두고 행추위의 표심이 3대 2로 갈리면서다. 신 행장은 중앙회 측 위원 2명과 정부 측 위원 1명의 표를 얻었으며, 이 원장은 나머지 정부 측 위원 2명의 표를 얻었다.

한편, 후보자가 최종 행장 후보에 선정되기 위해 행추위 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협은행 행추위 위원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양



Sh수협은행 본점.

/Sh수협은행

수산부에서 각각 추천하는 정부 측 인사 3명과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미래에셋생명, ETF AI MVP 누적수익률 62%

AI 활용 주식·채권 포트폴리오 구성

미래에셋생명은 인공지능(AI) 신호와 로직을 바탕으로 안정적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의 변액펀드 중 'ETF AI MVP(적극)'와 'ETF AI MVP(중립)' 펀드는 시장 국면을 판단한 AI 시그널과 로직을 바탕으로 전 세계 주식 및 채권, 대안자산에 투자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AI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Investment Strategy)본부의 AI 모델과 미래에셋생명의 자산배분 노하우가 결합된 전략으로, 단순 아웃소싱이 아닌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진화하는 AI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변액펀드들은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

셋생명 변액펀드 ETF AI MVP(적극)의 경우 올해 9월 15일 기준 누적수익률이 61.8%를 기록했다. 동일자 기준 ETF AI MVP(중립)의 경우 누적수익률 29.5%를 기록했다.

ETF AI MVP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수익률만 아니라, 운영회사 연간 보수율이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고객은 목표 수익률 달성과 동시에 효율적 장기 자산 관리까지 가능하다.

위탁한 미래에셋생명 AI혁신&변액운용본부장은 “미래에셋생명의 ETF AI MVP펀드는 고객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우수한 성과를 제공해 변액보험의 안정적 수익률에 기여하는 똑똑한 펀드”라며 “앞으로도 고객 최우선의 관점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원칙을 지키며 고객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주형 기자 gh471@

생필품 50% 할인·추석 선물 반값 혜택

카드사, 추석 맞이 행사 풍성

카드사들이 추석 명절맞이 혜택 경쟁에 나서고 있다. 명절을 맞이해 장보기와 선물 구매, 무이자 할부와 같은 혜택뿐 아니라 특정 카드 이용 고객을 겨냥한 9월 한정 이벤트도 잇따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비씨카드는 대형마트·슈퍼마켓 추석 선물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삼성카드 링크(LINK)를 등록한 고객이 이달 말까지 트레이더스에서 15만 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8만원 이상 결제 시 4000원 할인을 지급한다.

슈퍼마켓 이용 고객을 위한 혜택도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는 전단 행사상품 및 특정 품목을, 롯데슈퍼에서는 주차별 대표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가에 제공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는 추석 선물 세트를 최대 3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비씨카드 고객 역시 추석 선물 세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씨카드는 이달 24일까지 현대백화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추석 선물 세트 결제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과 할인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마트·편의점 할인 혜택도 준비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이달 24일까지 추석 선물 세트를 최대 반값에 제공한다. 롯데마트는 25일까지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CU·세븐일레븐에서는 각각 20%, 10% 할인을 지급한다. 이달 30일까지 주요 업종에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으로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선 곳도 있다.

NH농협카드는 이달까지 가맹점 대상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이달 27일까지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을 결제한 고객에게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김승연 회장, 현장경영 분주… “독보적 국방 AI 역량 키워야”

〈한화그룹〉

경북 구미 한화시스템 사업장 방문
첨단 방산제품 생산·시험시설 점검
협력사 포함 안전관리 중요성 강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올해 두 번째 현장경영 행보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을 찾았다. 지난 1월 제주우주센터에서 우주사업 경쟁력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룹 방산사업의 핵심 축으로 키우고 있는 인공지능(AI)과 체계통합 역량을 직접 점검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미래 방산 기술 경쟁력을 점검하고 ‘독보적인 국방 AI 역량’ 확보와 ‘안전제일’을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22일 경북 구미 한화시스템 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첨단 방산제품 생산·시험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동관 수석부회장이 22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을 찾아 천궁 다기능레이다 시험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화그룹

양기원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등이 동행했다.

김 회장은 먼저 K-방산을 대표하는 수출 품목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궁-II’의 핵심 센서인 다기능레이다(MFR) 조립·시험 현장을 찾았다. 다기능레이다는 항공기와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요격미사일 유도를 지원하는 핵심 방공장비다. 한화시스템은 해당 레이다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어 AI 기반 통합방공체계 개발 현황도 점검했다. 레이다와 전자광학센서 등 감시체계와 대공포·유도무기를 연결

해 복합 위협에 대한 판단과 대응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대형 근접전계시험장에서는 천궁 다기능레이다와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적용되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다의 시험·검증 역량을 살폈다.

해양분야에서는 통합함교체계(IBS)와 함정전투체계(CMS) 등을 점검했다. 한화시스템은 이를 기반으로 AI 기반 지능형 전투체계와 자동교전·자율항해, 유·무인 복합작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한화그룹 방산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은 AI이며, 그 중심 역할을 한화시스템이 맡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국방 AI 역량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할 기본 원칙으로 안전을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큰 성과는 안전에서 출발한다”며 임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까지 포함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주문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약 2800억원을 투자해 구미사업장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한 8만9000㎡ 규모로 구축했다. 약 1500평 규모의 클린룸과 첨단 생산·시험시설을 갖춰 국내외 방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김 회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제주우주센터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현장경영이다. 당시 민간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에서 우주사업 기술 경쟁력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K-방산 주요 생산·기술의 중심점인 구미사업장을 찾아 AI 기반의 미래 방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한화시스템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AI·체계통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수영부터 러닝까지… 손목 위 ‘운동코치’



체험기

갤럭시 워치 울트라2

갤럭시 워치 최초 수심 측정기능 탑재
운동강도 분석… 신체부담 정도 파악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수영하다 손목을 내려다봤다. 물이 깊어질수록 눈길 이 간 것은 위치에 표시되는 수심이였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울트라2’를수영부터 러닝, 요가까지 일상적인 운동에 직접 활용해봤다.

평소 주 2회 수영을 하면서 위치로 주로 확인한 것은 거리와 운동 시간이었다. 하지만 울트라2를 차고 해운대 바다에 들어가자 달랐다. 수영장에서는 얼마나 헤엄쳤는지를 봤다면 바다에서는 수심과 수온을 확인하기 위해 손목을 자주 들여다봤다. 울트라2는 갤럭시 워치 최초로 수심 측정 기능을 탑재해 물속에서 현재 수심과 수온, 머문 시간을 보여준다. 워터파크에서도 파도풀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봤다. 강한 파도를 반복해서 맞았지만 위치는 문제없이 작동했다.



폭우 속 야외 러닝 중 갤럭시 워치 울트라2로 운동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러닝을 하는 날에는 운동화를 신기 전부터 위치를 봤다. 아침에 에너지 점수가 낮게 나오면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낮췄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계획한 운동을 이어갔다. 에너지 점수에는 전날 활동과 수면 등이 반영된다.

인터벌 러닝을 할 때는 정해진 시간만큼 쉬고 다시 뛰는 대신 위치에서 심박수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뒤 다음 구간을 시작했다. 심박수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으면 조금 더 쉬었다.

폭우 경보가 내려진 날에도 울트라2를

차고 달렸다. 옷과 운동화가 흠뻑 젖을 정도로 비를 맞았지만 운동 기록은 정상적으로 이어졌다.

울트라2에는 운동 중 땀 손실량을 토대로 필요한 수분 섭취량을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됐다. 단순히 달린 거리와 시간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운동 중 몸 상태를 살피는 정보가 늘어난 셈이다.

러닝이나 수영을 하고 난 뒤에도 위치를 확인했다. 울트라2의 ‘일일 유산소 부하’는 최근 운동 강도를 분석해 몸에 쌓인 부담을 보여준다.부담이 높게 나온 날에는 요가를 하고, 컨디션이 괜찮은 날에는 러닝이나 수영을 이어갔다. 요가를 시작하면 운동 시간과 심박수도 함께 기록됐다.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탈 때도 앞선 운동의 부담을 확인한 뒤 강도를 조절했다.

밤에도 울트라2를 착용했다. 아침이면 렘수면과 깊은 수면 시간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코칭도 받을 수 있었다. 씻고 준비하는 약 1시간 동안 충전하면 하루 종일 착용해도 밤에는 30% 이상 남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전자, 獨 빌트인 가전 상설 쇼룸 개관

AI 기반 스마트 주방 구현

삼성전자가 독일 주방산업 중심지에 빌트인 가전 상설 거점을 마련하고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독일 가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빌트인 시장에서 현지 주방·가구 전문점과의 접점을 넓혀 기업간거래(B2B) 판매망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뢰네의 키친 센터 뢰네(Kitchen Center Lohn e-KCL) 1층에 약 480㎡(약 145평) 규모의 빌트인 가전 상설 쇼룸을 개관했다.

뢰네는 독일 주방산업의 약 3분의 2가 밀집한 지역으로 매년 주방가구·가전 전시회인 ‘뮌헨마일레(Kuchenmeile)’가 열린다.

독일은 빌트인 가전 비중이 높은 시장이다.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가전시장 매출의 50% 이상을 빌트인 제품이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약 65%가 주방·가구 전문점을 통해 판매됐다.

삼성전자는 쇼룸을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주방으로 꾸몄다.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주요 빌트인 가



삼성전자가 독일 뢰네에서 빌트인 가전 상설 쇼룸을 개관했다. /삼성전자

전을 실제 주방처럼 배치했다.

전시 제품은 스마트싱스로 연결해 가전 간 연동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대에 따라 세 가지 빌트인 주방 패키지도 구성했다.

현지 주방 구조에 맞춘 설치 방식도 선보였다. 식기세척기 위에 쿡탑을 설치하거나 가구 도어 패널을 식기세척기에 부착해 주방 공간과 가전을 하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상설 쇼룸에서는 유통 파트너를 대상으로 제품 교육과 상담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향후 유럽 각국의 주방산업 파트너가 활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쇼룸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LG, MS 전략적 파트너십… 글로벌 AI 사업 속도낸다

구광모 대표 등 양사 경영진 교류
데이터센터·AX 등 협력범위 확대

LG가 엔비디아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와도 손잡고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AI 데이터센터(AIDC)와 퍼지컬 AI부터 전사적인 AI 전환(AX)까지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범위를 넓히며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LG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MS 본사에서 구광모(현) LG 대표와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경영진 회의(TMM)를 열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봉

석(현) LG COO, 류재철 LG전자 CEO, 홍범식 LG유플러스 CEO, 현신균 LG CNS CEO 등 그룹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양사는 AIDC 분야에서 MS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확대에 맞춰 LG의 냉각·전력·IT 인프라 솔루션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단기적으로 주요 전략 거점의 대용량 냉각 솔루션 공급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속한 증설이 가능한 프리패브 데이터센터까지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퍼지컬 AI에서도 협력을 이어간다. LG는 제조·물류·모빌리티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 학습을 확대하고 MS의 고성능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 데이터 수집과 학습을 가속화한다. 이는

앞서 엔비디아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플라이휠’과도 연결된다. LG는 엔비디아와 제조·물류 데이터를 활용해 로봇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올해 말까지 10만시간 규모의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사 AX도 본격화한다. LG는 전사 사무직을 대상으로 MS 코파일럿을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E7: Frontier Suite 등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해 업무 방식을 AI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LG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지난해 12월 MS 본사에서 열린 테크쇼에서 양사 간 전략적 협력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수개월에 걸친 실무 협의와 경영진 간 교류를 통해 구체화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한화에어로, 美 아칸소 탄약생산 거점 구축

7년간 3조 투자… 美 사업기반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아칸소주에 첨단 탄약 생산거점을 구축하며 현지 방산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아칸소주 미 육군 기지인 파인블러프 아스널(PBA)에서 현지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한화디펜스USA가 지난 1월 미 육군이 공모한 파인블러프 아스널 부지 임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현지 탄약 생산거점 조성에 착수하는 첫 단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7년간 22억 달러(약 3조원)를 투자해 해당 부지에 한화 첨단 제조 캠퍼스(Hanwha Advanced

Manufacturing Campus)를 조성하고 약 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캠퍼스에는 155mm 포탄 구성품과 추진장약 생산시설이 들어선다. 원료 투입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공정을 수직계열화하고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통합 제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미국 내 탄약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현지 탄약 산업 기반의 현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마이클 쿨터한화디펜스USA 대표이사는 “한화의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투자 및 고용 창출 등을 통해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나가고 있다”며 “향후 미국 탄약 산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양국 방산 협력 확대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소상공인 지원 더 촘촘히… 벤처투자 불공정 관행은 ‘손질’

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법 개정
국세청·고용부 자료 활용 근거 마련
다중·부업사업자 중복지원 차단
벤처투자 불공정 계약조건 제한
중소 우선조달 3.5억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 수립·지원을 위해 앞으로 국세청·고용노동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투자 계약이 제한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소상공인의 정의에 따라 사업자 중심으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해 왔다.

하지만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같은 대표자가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뉴시스

‘다중사업자’가 각 점포별로 지원을 받거나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부업사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개정으로 중기부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세청으로부터 기존에 제공받던 매출액뿐 아니라 사업소득·근로소득과 매출원가·판매비 등 소득·비용과 관련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확보한 자료는 소상공인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그동안 사업자 중심 지원으로 발생했던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 예

산이 촘촘하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금전 제공 및 수수행위를 금지했다.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 계약 체결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

한 계약조건을 제한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과도하게 증권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한다.

또 불공정한 투자 계약 조건을 설정할 경우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범위가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늘어나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 부담 낮춘다

중진공·소진공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
정상 차주 상환유예·기간 연장 지원
연체 차주는 새출발자금과 연계

정부가 ‘티메프’ 피해 기업들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그러나 최근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상환능력과 연체 여부 등 차주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상환 차주에는 중진공·소진공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차주에는 ‘새출발자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낮추고, 조정된 상환일정 이행 시 상환기간 1년 연장을 연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과 상환유예 등

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 차주 중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1년 근속 시 0.5%p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한화솔루션, 500kV 케이블 소재로 中 공략

상하이 ‘와이어 차이나 2026’ 참가

한화솔루션이 500kV급 초고압 케이블 소재와 패키케이블을 재활용한 순환형 솔루션을 앞세워 중국 고부가 케이블 소재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와이어·케이블 전시회 ‘와이어 차이나(Wire China) 2026’에 참가해 차세대 케이블 소재와 순환형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와이어 차이나는 글로벌 케이블 제조사와 소재·설비 기업들이 전력 케이블 관련 제품과 기술을 공개하고 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와이어·케이블 전시회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전시에서 ‘Best Quality, Better Planet’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500kV급 초고압(SEHV) 가교폴리에틸렌(XLPE)과 반도체 소재를 적용한 케이블



한화솔루션 ‘와이어 차이나 2026’ 부스. /한화솔루션

모형을 공개한다. 초고압 송전 환경에서 요구되는 절연 성능과 장기 신뢰성을 중심으로 소재 기술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패키케이블 소재를 다시 케이블 생산에 활용하는 순환형 XLPE ‘클로즈드 루프(Closed Loop)’ 솔루션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한화솔루션은 이날 중국 주요 케이블 기업인 ZTT·형통과 각각 소재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원관희 기자 wkh@

LS일렉트릭, 부산공장에 ‘로봇개’… 설비 점검 자동화

부산사업장에 ‘스팟’ 2대 정식 도입
열·소음·진동 감지해 이상징후 포착

LS일렉트릭이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부산사업장에 4족 보행로봇을 투입해 설비 점검과 품질·안전 관리를 자동화한다. LS일렉트릭은 로봇 시스템통합(SI) 전문기업 현대오토에버와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시험 운영을 거쳐 부산사업장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로봇 ‘스팟(Spot)’ 2대를 정식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사업장은 초고압 변압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곳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망 투자 확대로 생산 물량이 늘면서 주요 공정과 시험설비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의 필요성도 커졌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Spot을 따라 부산사업장 생산동으로 이동하는 모습. /LS일렉트릭

스팟은 우선 초고압 변압기의 절연 성능을 좌우하는 진공건조로(VPD) 공정에 투입된다.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VPD 챔버 도어 실링 이상과 열 누설 여부를 비접촉 방식으로 자동 점검하고 진공펌프와 모터·제어반의 발열, 소음, 진동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설비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고장에 따른 생산 차질을 줄이는 데 활용된다.

설비 점검과 함께 생산 환경 관리에도 스팟을 활용한다. 인공지능 기반 비전검사(AIVI) 기술로 항온·항습 설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센서로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의 온·습도 데이터까지 확보한다. LS일렉트릭은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생산 환경과 제품 품질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공정별 최적 생산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점검 범위는 초고압 변압기 시험설비와 모터·냉각기·펌프·철러·발전기 등 주요 유틸리티 설비로 넓어진다. 스팟이 주기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AI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예지보전 체계를 구축한다.

/원관희 기자

포스코DX, AI로 AX 컨설팅 기간 절반 단축

AI 에이전트 ‘에이전티-씨’ 개발

포스코DX가 인공지능(AI) 전환 컨설팅에도 AI를 투입한다. 업무 분석과 설계를 지원해 컨설팅 기간을 줄이고 기획부터 구축·운영까지 이어지는 AX(AI 전환) 사업 체계를 강화한다.

포스코DX는 AI 에이전트 ‘에이전티-씨’를 개발해 기업의 AX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이전티-씨는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업무 진단부터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 작성까지 개발에 앞선 과정을 컨설턴트와 함께 수행한다.

기업의 AX 수요는 여러 업무 영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컨설턴트가 프로젝트마다 직접 투입돼 현

업 인터뷰를 거쳐 업무를 분석하고 과제를 발굴·설계했다. 이 때문에 다수의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포스코DX는 에이전티-씨를 기존 AI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티’와 연계했다. 에이전티는 AI 에이전트의 개발·운영·평가·재배치 등 생애주기를 통합 관리한다. 에이전티-씨가 도출한 업무 분석과 설계 결과를 에이전티에 입력해 기획부터 구축·운영까지 AX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컨설팅과 설계에 걸리는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이고 개발·운영 단계로 빠르게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AI 워크포스 TF’를 신설해 AX 컨설팅과 AI 에이전트 개발·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대한민국 왕실문화 관광경제 벨트

왕실의 길이 다시 열린다... '로열 로드카' 대한민국 관광지도를 바꾼다

경주·김천 청암사·안동에서 영천·영덕·울산·공주·부여·강화·양평·여수·거제·태안·
강릉·속초...까지

신라·백제·조선의 왕실문화와 지역관광을 잇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경제 벨트 출범

ROYAL HERITAGE ROAD PROJECT

왕실경복 골든 트라이앵글

경주 · 김천 청암사 · 안동

왕실문화유산 × 로열 로드카 × 지역관광

역사문화도시를 로열 로드카로
직접 달리며 체험하고

관광·축제·전통시장·숙박을
하나의 코스로 연결하는 문화관광사업

각 지역의 역사를 관광산업으로 바꿀

대한민국 로열 로드카의 창립 파트너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각 지역에 새로운 왕실의 길을 열어갈
훌륭한 인재와 역량 있는 창립 파트너를 모십니다

사업 참여 문의 010-7613-6929

글로벌 빅테크와 손잡은 SI 3사… ‘기업용 AI’ 주도권 경쟁

삼성SDS, FDE 인력 200명까지 확대
LG CNS, ‘오픈AI 론치 센터’ 가동
SK AX, 올해까지 인력 30% 충원

국내 시스템통합(SI) 3사가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확대해 기업간거래(B2B)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픈AI·앤스로픽 등의 AI 모델을 활용해 에이전트 AI 구현에 나서는 한편, 이를 기업 업무에 적용할 현장 전문인력 확보에도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시스템통합(SI)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LG CNS·SK AX는 최근 오픈AI·앤스로픽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를 현장에 적용했다면, 최근에는 AI 모델 적용해 기업 업무에 활용하는 에이전트 AI 구축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12월 오픈AI와



지난 6월 삼성SDS 이준희 대표이사(오른쪽)와 앤스로픽 크리스 차우리 인터내셔널 GTM 총괄이 엔터프라이즈 AI 사업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미팅을 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삼성SDS

추진한 서비스 협력이다. 삼성SDS는 국내 최초로 기업 고객에 챗GPT 기업용 모델을 재판매하거나 운영·관리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LG CNS와 SK AX도 오픈AI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국내 SI 3사 모두 챗GPT 엔터

프라이즈 공급 권한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앤스로픽과의 협력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삼성SDS는 올해 6월 이준희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즈니스 미팅에 나선 지 약 3개월 만에 국내 최초로 앤스로픽 공인 파트너 자격을 획득했다.

LG CNS는 앞서 LG그룹 차원에서 전 계열사에 앤스로픽의 클라우드 AI 모델을 도입해 전사 인공지능 전환(AX)에 나섰으며, 이를 대외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SK AX도 앤스로픽의 클라우드 코워킹을 적용한 기업용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SI 3사가 여러 글로벌 AI 모델 확보에 나서는 것은 산업별 업무 환경과 보안 요건에 적합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만 글로벌 AI 모델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업의 내부 시스템과 운영 체계에 연동하지 못하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따라서 실제 현장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전문성 확보가 필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SI 3사는 현장 전담 조직과 인력 양성에 나섰다. 삼성SDS는 올해까지 전방 배치 엔지니어(FDE)를 AX 사업의 핵심 실행 조직으로 키우고

관련 인력을 200여명으로 확대한다.

LG CNS는 정예 인력을 결집한 오픈AI 론치 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컨설팅부터 전용 시스템 설계, 인프라 구축까지 풀스택 서비스를 제공한다.

SK AX는 개별 인력의 AI 역량을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부트캠프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FDE 역할을 수행하는 AI 개발자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AI 모델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 입증 이 기업용 AI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발표한 ‘한국의 AI 잠재력 실현 2026’에 따르면, 국내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10곳 중 6곳으로 절반을 넘어섰지만, 이중 47%는 신뢰할 만한 투자 수익률(ROI) 측정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카카오, AI로 데이터센터 냉방 최적화

냉방설비 교체 없이 전력비 23% 절감
폭염·서버 사용량 변화에도 안정적 운영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열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카카오가 별도의 냉방설비 교체 없이 운영 효율화만으로 냉방 전력비를 약 23%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 이어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 하남 데이터센터의 냉방설비 운영 방식을 개선해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안산 데이터센터에서 축적한 데이터 기반 열관리 노하우를 하남 데이터센터에 적용했다. 설비를 새로 교체하거나 증설하는 대신 실제 운영 데이터와 현장 상황을 분석해 전산실 냉방 온도와 냉동기의 냉수 온도를 최적화했다.

그 결과 폭염과 서버 사용량 변화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냉방 전력비를 약 23% 절감했다. 서버 사용량과 외부 기온 등 운영 조건의 영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전경

/카카오

향도 함께 반영해 비교한 결과다.

이번 작업에는 LG CNS도 참여했다. 카카오가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LG CNS가 현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항온항습기와 냉동기 등 주요 냉방설비의 운전 방식을 조정했다.

일부 전산실에는 LG CNS가 개발한 AI 에이전트도 적용했다. AI 에이전트가 전산실 환경과 설비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냉방설비를 자동 제어해 서버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자체 데이터센터에서도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냉각설비 최적화와 공간 운영 개선, 전력설비 효율화, 태양광 자가 소비 등을 통해 지난해 총 4753tCO₂e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U+, 소상공인 전용 AX 솔루션 개발

도·소매 유통 업체 ‘소도몰’과 업무협약

LG유플러스가 소상공인 전용 인공지능 전환(AX) 솔루션 개발에 나서기 위해 도·소매 유통 업체 ‘소도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장 내 AI 및 통신 솔루션 등 AX 지원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가 운영 중인 통신 및 AI 인프라에 소도몰의 온·오프라인 유통 데이터를 결합하고 사업자별 맞춤형 상품 수요 예측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AX 솔루션 ‘우리가게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상권분석 서비스를 소도몰의 지역별 상품 판매 데이터와 결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 군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솔루션을 실증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상품 확보와 물류 운영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해 시장 경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임장혁 LG유플러스 엔터프라이즈고객그룹장(왼쪽)과 서덕호 소도몰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또 소상공인이 사업장에서 AI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X 솔루션 개발도 협력한다. LG유플러스는 AI 데이터를 통해 고객 응대와 매장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고, 소도몰은 이를 공동구매 플랫폼 운영 노하우와 결합해 소상공인의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KT, 16개 기업과 ‘모두의 AI’ 출범

출범식 열고 사업 추진방향 공유
‘이음 얼라이언스’ 통해 협력

KT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감형 AI 서비스 구현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KT는 2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모두의 AI’ 컨소시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KT 컨소시엄 주요 기업 16개의 사업책임자(PM)가 참석해 사업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 KT와 KT컨소시엄은 ‘이음 얼라이언스’를 통해 협력한다. 이는 사업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기구 ‘이음 커넥트보드’와 전체 협의체 ‘이음 에코라운드’ 등으로 나뉜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일정과 서비스 출시 목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기관 간 연계 과제와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조정해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음 커넥트보드’에서 각 분야 전문가와 실무책임자들이 서비스 출시 목표와 협력 과제를 조율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구체화한다. 전 참여기관이 함께 모여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정기 통합 협의체인 ‘이음 에코라운드’를 통해 주요 성과와 마일스톤 점검한다.

또한 서비스 분과와 플랫폼 분과를 중심으로 서비스와 기술 분야의 실행 체계를 운영한다.

/조민선 기자

다음, 아시안게임 특집 페이지 운영

다음은 지난 19일 개막한 ‘2026 아시안게임’의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정보와 종목별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집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특집 페이지에서는 대표팀 경기 일정과 결과를 비롯해 종목별 뉴스와 화보, 메달 리스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축구와 야구 대표팀 경기는 문자중계를 통해 실시간 경기 상황을 전달하고 주요 영상도 함께 제공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경기와 선수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했다. ‘MY’ 메뉴의 관심경기를 이용하면 보고 싶은 경기를 별도로 저장해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SKT, 고객 행동 분석해 ‘신뢰 지표’ 만든다

‘2026 인사이드 데이’ 개최

SK텔레콤이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직접 만들기 위해 고객자문단과 고객신뢰위원회를 통해 ‘2026 인사이드 데이’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정재현 SK텔레콤 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고객신뢰위원회가 진행한 ‘2026년 신뢰 회복 강화 방안’에 이은 행보다.

지난 21일 SK텔레콤 한명진 MNOCIC장, 이혜연 고객가치혁신실장 등 주요 임원진과 안완기 고객신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고객자문단 30명이 참석해 기업의 신뢰 기준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는 “신뢰를 묻지 말고 행동으로 읽자”는 발상에서 시작했다. 고객에게 기업

의 신뢰도를 묻는 대신, 고객이 평소 하는 행동을 신뢰의 증거로 삼아 지표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는 1990년대 초 미국 시애틀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지표까지 직접 만든 ‘서스테이너블 시애틀’ 사례를 참고했다. 2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역 하천의 야생 연어 개체 수, 텃밭 가꾸기 참여도와 같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항목을 지속 가능성 지표로 삼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날 고객자문단은 요금제·가입·변경, 통신서비스 이용, 멤버십 관리·활용, 고객 접점, 기업과의 신뢰 유지 등 5개 영역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행동 변화를 발표했다. 핵심은 기업을 신뢰할수록 고객이 스스로 챙기고 확인하는 행동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조민선 기자

종투사 발행어음 8파전… 고금리 경쟁에 커지는 운용 부담

8개사 체제 확대, 최대 138조 발행 후발사 가세 고객자금 유치전 본격화 특판금리 올라 조달비용 부담도 커져 모험자본 공급 의무도 단계적 확대 리스크관리 역량 등이 성패 좌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발행어음 시장 경쟁이 조달 규모를 늘리는 단계에서 비용과 운용수익을 따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삼성증권이 8번째 사업자로 합류한 가운데 1년물 금리도 연 5% 수준까지 나타나면서, 증권사들은 고객자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와 함께 이를 웃도는 운용수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어 내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한 국내 8개 증권사의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총 69조 2032억원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는 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으로, 이론상 8개사의 발행 한도를 합치면 138조 4064억원에 달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며 국내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합류했다.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에 이어 지난해 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



서울 여의도 전경.

투자증권이 차례로 시장에 진입한 데 이어 삼성증권까지 가세하면서 발행어음 시장은 8개사 체제로 확대됐다.

실제 시장에는 신규 사업자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삼성증권이 합류하기 전이었던 올해 6월 말 기준 7개사의 발행어음 잔액은 55조 9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 등 4개사의 잔액이 50조 940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5조원 늘었다. 후발주자인 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도 6월 말까지 총 3조 1052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자가 늘면서 고객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신규 고객 등을 대상으로 2~90일물에 세전 연 5.5% 금리를 적용하는 첫 발행어음 특판을 선보였다. 앞서 키움증권은 생애 최초 계좌 개설 고객에게 1년물 연 5%, 한국투자증권은 신규 자금이 1년물 연 4.9%와 6개월물 연 4.7%, 신한투자증권은 6개월물 연 4.5% 상품을 내놓는 등 고금리 특판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고객에게 자금을 조달한 뒤 기업금융 등 각종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따라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리가 높아질수록 증권사가 부담해야 하는 조달비용도

커진다. 자금 유치 경쟁이 심해져 금리 수준이 올라갈 경우 조달한 자금을 통해 그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수진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다수 회사의 발행어음 동시 진입은 조달 비용 상승 및 운용 자산 확보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증권사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산 선별 능력과 리스크 통제 수준이 향후 증권사들의 신용도와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특히 후발주자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6월 말 기준 발행어음 잔액은 한국투자증권 22조 4680억원, KB증권 11조 32억원, 미래에셋증권 10조 5776억원, NH투자증권 8조 7752억원 등 기존 사업자에 집중돼 있다.

삼성증권의 합류는 이 같은 경쟁 구도에 변화를 줄 변수로 꼽힌다. 삼성증권은 지난 6월 말 별도 기준 자본총계가 8조 1566억원에 달하며, 대규모 자산관리(WM)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자와의 고객 유치 경쟁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6월 말 기준 리테일 고객자산은 652조 4000억원, 고객자산가 고객은 57만 2000명에 달한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시장 진입을 위한

자본과 실적 기반을 갖추고도 인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의 올해 상반기 자본총계는 8조 3495억원으로 삼성증권보다 많고,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514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9% 증가했다. 그러나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인가 심사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발행어음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증권사들의 고민은 조달 이후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발행어음 조달액 가운데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올해 10%에서 내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기업대출, 메자닌, 벤처펀드 등으로 투자처를 확대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안정적인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커질 수 있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기조에 따라 증권사의 위험인수 영업이 본격화할 경우 개별 증권사의 우량자산 선별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른 실적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김학균 “금리 움직이는 건 연준 아닌 재정”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KRX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진단
재정적자·유가불안 금리 상승 압력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선이 중앙은행에서 각국 정부의 재정 상황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 등이 국채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RX 출입기자단·증권사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해 “지금 금리를 움직이는 요인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있지 않다”며 “이미 시장금리가 먼저 올라갔고 연준이 이를 사후적으로 추진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사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실제로 미국 국채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높았던 2022~2023년 긴축기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신영증권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미국 기준금리 고점은 5.25~5.50%였지만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 고점은 각각 4.99%, 5.11%였다.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3.75~4.00% 수준임에도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각각 5.02%,

5.36%까지 상승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 경제가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을 서둘러야 할 만큼 과열된 상황도 아니라고 봤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도 강하지 않은 만큼 최근 금리 상승을 물가와 경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금리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센터장은 “미국의 2분기 재정적자는 GDP의 5.55%에 달한다”며 “미국 뿐 아니라 영국과 일본에서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 국채금리가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부채를 조달하는 비용이 커져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하은 기자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6000억 펀다

30일부터 10영업일간 선착순 판매

지난 5월 출시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조기 완판 이후, 금융당국이 4개월 만에 2차 상품을 내놓는다. 모집 규모는 1차와 같은 6000억원이다. 초기 흥행을 이어가면서도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1차 투자자의 재가입은 제한하고, 서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물량은 전체의 절반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선착순 방식으로 모집해 6000억원이 소진되면 판매 기간 중에도 조기 마감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을 모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5년 만기 폐쇄형 공모펀드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가 예정된 판매 기간보다 일찍 물

량을 소진하면서 추가 참여를 원하는 투자자 수요가 확인됐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2차 펀드는 1차 상품에 실제 투자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1차 가입을 위해 전용 계좌만 개설하고 투자하지 못한 경우에는 2차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1차 또는 2차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내년 이후 출시되는 상품에는 다시 가입할 수 있다.

판매 첫 5영업일인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전체 모집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한다. 1차 판매 당시 20%였던 우선 배정 비중을 30%포인트 높였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민 전용 물량과 일반 물량은 판매 첫날부터 동시에 모집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美금리 제자리인데… 미국채 ETF 손실펍 3분의 1로 축소

원·달러 환율 변동 수익률 좌우

국내 상장 미국채 10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손실 폭이 열흘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원·달러 환율의 비교 기준점이 달라지면서 환노출형 ETF 수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TIGER 미국채10년선물’의 최근 1개월 손실률은 이달 11일 -6.32%에서 21일 -2.27%로 축소됐다. ‘KODEX 미국10년국채선물’은 -6.23%에서 -2.28%로,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는 -5.97%에서

-1.87%로 개선됐다. 세 종목 모두 손실펍이 4%포인트 안팎 줄었다. 반면 환헤지형인 ‘KODEX 미국10년국채액티브(H)’는 같은 기간 손실펍이 -1.56%에서 -2.03%로,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H)’는 -1.18%에서 -1.45%로 확대됐다.

환노출형 ETF의 손실 축소는 환율 영향이 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1일 1415.3원에서 한 달간 5.45% 하락했지만, 지난달 21일 1393.0원부터 한 달간 하락률은 0.66%에 그쳤다. 두 구간의 차이인 4.79%포인트는 환노출형 ETF의 손실 축소 폭인 3.95~4.10%포인트와 비슷하다. 같은 기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달 10일 4.708%에서 이달 16일 한때 5.004%까지 올랐지만, 이달 11일 4.975%와 21일 4.948%의 차이는 0.027%포인트에 불과했다.

개인은 손실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저가 매수에 나섰다. 최근 한 달간 개인은 ‘TIGER 미국채10년선물’을 36억 5800만원, ‘KODEX 미국10년국채선물’을 17억 3300만원,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를 66억 4500만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세 종목을 각각 38억 9100만원, 17억 3300만원, 64억 6000만원 순매도했다. 향후 환율과 금리 방향이 ETF 수익률을 다시 가를 전망이다. /김아영 기자 aykim@

거래소, 자체 산업분류체계 ‘KRICS’ 도입

9개 섹터·129개 하위산업으로 세분화

한국거래소가 국내 산업구조와 상장기업 특성을 반영한 자체 산업분류체계(KRICS)를 도입한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산업환경에 적합한 상장기업의 산업별 분류와 포지셔닝 관리, 다양한 자수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KRX 산업분류체계(KRICS·KRX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구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KRICS는 국내 산업구조와 상장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산업구조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거래소는 23일부터 ‘KRX 산업분류체계 방

법론’을 시행하고, 내달 26일부터 KRX 인덱스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준에 따른 산업분류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공표 대상은 KRX 상장종목의 KRICS 1·2 단계 산업분류 결과와 주가·거래량 등 관련 시장 데이터다.

KRICS는 국내 경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 구조에 맞춰 9개 섹터를 최상위로 두고 산업그룹·산업·하위산업으로 이어지는 4단계 계층구조로 구성됐다.

1단계 섹터 9개, 2단계 산업그룹 24개, 3단계 산업 60개, 4단계 하위산업 129개로 세분화된다.

/신하은 기자

aT, 나고야서 K-푸드 띄운다… 글로벌 ‘가품’ 대응도 본격화

아시안게임 맞아 홍보관 운영
농식품 170여종 현지 전시
시식·체험으로 식문화 홍보
11월까지 모방품 제보 캠페인
中·아세안 ‘지킴이’ 10명 선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이번 아시안게임이 폐막하는 10월 상순까지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한다. 지난 주말 개막일에 맞춰 신선농산물 등 총 170종의 농식품 전시를 시작했다. aT는 또 해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K-푸드 가품 대응에도 나선다. 22일 개시한 감시활동에는 세계 각국 소비자들도 힘을 보탠다. 향후 두 달간 전개될 ‘글로벌 K-푸드 모방품 인식 제고 캠페인’이다.

aT는 2026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현지에서 K-푸드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aT 등은 지난 18일 나고야 도심 한복판에 ‘코리아하우스’를 설치했다. 또 코리아하우스 내에 ‘인조이 코리아푸드’를 테마로 한 K-푸드 홍보관을 꾸렸다.



일본 나고야 도시에 조성된 ‘코리아하우스’

/aT

홍보관에서는 한국 식품의 우수성과 최신 흐름, 전통·건강식품 소개에 주력하고 있다. 다양한 품목의 K-푸드의 전시와 함께 시식·시음 행사를 진행 중이다. 또 방문객들이 한국의 식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파프리카, 토마토, 김치, 식초음료를 비롯해 포도, 복숭아, 참외 등 현지에서 주목받을 만한

품목도 전시했다. 총 170여 종의 한국 농식품을 선보인다.

홍보관 방문객 대상으로는 ▲화채 만들기 등의 한국 식문화 체험 ▲상자 속 K-푸드 찾기 퀴즈 ▲K-푸드 증정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코리아하우스 스테이지에서는 한국 요리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쿠킹 클래스도 운영 중이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대한체육회와 협업해 ‘송편 만들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재일동포 단체인 민단과 현지 교민, 일반 소비자가 한데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정이다.

일본은 K-푸드의 주요 수출대상국 중 하나다. 지난해 일본시장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3억45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과 식문화도 유사해 김치·잡외·파프리카·삼계탕 등이 현지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을 찾는 일본인 방문객 수가 최근 크게 늘면서 K-푸드를 접해 본 소비자도 더불어 증가했다. 이에 aT 오사카지사는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홍보뿐 아니라 교민 단체·기관 등과 협업을 적극 추진한다. 일본 소비자와 K-푸드 간 접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T의 전기한 수출식품이사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45개국 1만5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인 만큼, K-푸드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일본 소비자들이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직접 경험하고 K-푸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T는 전 세계 소비자와 함께하는

‘글로벌 K-푸드 모방품 인식 제고 캠페인’(real K-Food catcher)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K-푸드의 세계적 인기에 따른 가품 유통에 대한 대응이다.

이미 지난해 캠페인을 통해 중화권과 동남아 국가에서 모조품 유통 현황을 확인한 바 있다. ▲한국의 인기 라면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 ▲태극 문양을 제품 전면에 부착한 외국산 김치 ▲‘매운맛’ 등 한글을 표기해 한국산으로 오인할 유도를 과자류 등이다.

올해는 9월22일부터 11월15일까지 전 세계 소비자가 참여하는 모조품 인식 제고 캠페인을 운영한다. 특히 모조품 유통이 빈번한 중국·아세안 국가의 우수참여자 10명을 ‘K-푸드 지킴이’로 선발한다. 전체 참여자 가운데 400여명을 추천해 소정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소비자는 물론 해외를 방문한 내국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T 홈페이지 내 real K-Food catcher 코너에서 제품 전면 사진과 원산지 표시 사진, 제품명, 유통매장, 모방의심 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12차 전기본 앞두고 ‘원전 공론화’ 착수

기후부, 원전 공론화 계획 보고
이해관계자 뺀 공론화위 구성
시민참여단 3개월 숙의 진행

정부가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이 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확정을 앞두고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정하기 위한 범국민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AI·반도체 등 급증하는 미래 전력수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으로서 원전의 위치를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약 3개월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원전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공론장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중립적 인사 중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중립적 인사 총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원전 이해관계자는 위원 직에서 제외되며, 원전 기술 및 수급 전문가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지원하게 된다. 부처 내부에는 공론화를 밀착 지원할 전담 TF 형태의 ‘공론화지원단’도

약 3개월간 운영된다.

공론화는 대표성 있게 뽑힌 국민들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거치는 ‘숙의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참여단 의견은 숙의 전·후 조사를 통해 의견 변화를 확인하고, 전문가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이 다각도로 병행된다.

공론화위원회가 약 3개월간의 숙의를 거쳐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기후부에 권고하면, 정부는 이를 전력수급 및 계통 등 전문적 검토 결과와 종합해 최종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전기국가 토론회(8.20), 전력수요 토론회(8.20),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8.26),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9.18) 등을 연속 개최하며 분야별 의견을 모아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무보, 머큐리아에 2억달러 지원

국적선사 용선계약 확대 기대
국내 해운사 수주기회 넓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무보)가글로벌 원자재 중개기업에 대규모 중장기 금융을 지원하며 국내 해운산업의 해외 영토 확장에 나섰다.

무보는글로벌 원자재 중개기업인 머큐리아(Mercuria)에 한국 해운사 앞 용선료 지급을 위한 2억 달러(약 27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해외사업금융보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머큐리아는 싱가포르와 스위스 제네바에 거점을 두고 원유·광물 등 핵심 원자재를 거래하는 세계적인 중개기업으로,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 전 세계 주요 해운사들과 용선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 금융 지원은 머큐리아가 향후에도 한국 해운사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강화하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머큐리아가 최근 3년간 한국 해운사에 지급한 용선료 중 중견기업 비중은 약 15%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 이용이 늘어나면 국내 중견 해운사들의 수주 기회와 용선료 수입도 확대될 전망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지난 8월 머큐리아 제네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한국 해운사 이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우리나라 무역 공급망을 지탱하는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위해 글로벌 원자재 중개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 수요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마사회, 몽골 흡스골주와 말산업 협력

말문화·관광 연계 협력방안 모색

한국마사회가 몽골의 흡스골 주와 ‘말문화 및 말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보유한 경험과 자원을 활용해 말문화와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몽골 측 대표단이 지난 주말 한국을 찾았고, 랫트란프크 서울(과천경마공원)에서 협약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우회종 마사회장과 돈도브 푸레브도르지 흡스골의회의장, 바트에르텐 몽골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교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협약은 마사회가 지난 7월 한·몽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몽골을 방문해 마련한 교류 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

다. 당시 한국마사회는 몽골 ‘세계 말의 날 재단’(WHDF)과 말문화 및 말산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방한한 흡스골주 대표단은 몽골의 전통 말문화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교류 가능성에 관심을 표명했다.

앞서 마사회는 오토근 사륜출론 국회의원과도 ‘말을 활용한 재할·치유분야 및 말산업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몽골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우회종 회장은 “몽골은 말 자원이 풍부하고 고유의 전통 말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국가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말산업 인프라와 전문성이 결합된다면 말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추석 맞아 전국 30여곳에 온정

임직원 모금으로 위문금 마련
전국 복지·장애인시설 30곳 방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 및 장애인 시설에 위문금·생필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공단 본부와 고용개발원, 32개 소속기관이 모금에 참여했고, 이날 전국 사회복지 및 장애인 시설 30여 곳을 방문했다.

위문금은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했다. 또 지역 상생도모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의 형태로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소속기관별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시설을 찾는 등 위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22일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본부·고용개발원 임직원이 모금한 200만 원 상당의 위문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이 이사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공단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엄정화 박성웅 이상윤 배정남 박진주 려운 그리고 최수영

감독 이상아 제작 CGV 픽처스 울(GAL) 배급 CGV 픽처스 제작 울(GAL) 15세이상관람가

절찬상영중

오케이 마담2



탈춤·고싸움·음악회… 전남광주, 한가위 즐길거리 ‘풍성’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탈춤 한마당
광주미술관서 비엔날레 연계 전시
음악회·축구대회 등 자치구별 행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석 연휴 동안 광주의 자치구별에서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국립광주박물관과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국립광주과학관 등에서는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이 펼쳐지고, 광주미술관에서는 광주비엔날레 연계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자치구에서도 고싸움놀이와 음악회,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흥겨운 탈춤 한마당’을 열어 전통 탈춤공연과 민속놀이터를 운영한다.

같은 기간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2026년 한가위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별한 연계 ‘힐끗 만들기’를 비롯해 ‘소원을 들어주는 달항아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와 특별전 미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지난해 열린 한가위 고싸움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24일과 26~27일 ‘한가위 특별행사’가 열린다. 제기차기·투호·윷놀이·활쏘기를 비롯해 전통악기, 상모돌리기, 소고 배우기 등 다양한 전통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27일에는 한가위 과학실험쇼와 솜사탕 풍선 퍼포먼스 등 과학문화공연도 펼쳐진다.

광주미술관에서는 오는 11월15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 교류전 ‘번안된 풍경 제2장: 토리노에서 광주까지’와 제16회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카지노 룩셈부르크 파빌리온 ‘사마귀의 날(The Day of the Mantis)’, 몽골 파빌리온 ‘영

원하고도 먼 것: 집단 기억과 동시대의 도전들’ 등이 진행된다.

자치구 곳곳에서도 추석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마련된다. 남구에서는 24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에서 ‘윷놀이 고싸움놀이 달맞이’가 열린다. 고싸움놀이 공연과 함께 송편 만들기, 그림책 만들기 체험이 운영되며, 투호·제기차기·윷놀이 등 전래놀이와 큐알(QR)퀴즈도 즐길 수 있다.

서구에서는 22일 오후 7시 내방어린이공원에서 ‘한가위 달빛음악회’가 열려

주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북구 각화주공단지에서는 22일 오후 2시 ‘2026 도심 속 힐링선율 작은음악회’가 열린다. 각화어린이집의 식전공연에 이어 색소폰 앙상블이 트로트와 영화 OST, 대중가요 등을 들려준다.

광산구에서는 24일 오후 6시 삼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13회 삼도동 주민 화합 추석 노래자랑’이 열려 식전공연과 기념식, 주민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5일부터 27일까지 월전공원과 용동공원에서는 추석맞이 광산구청장배 전국이주노동자 축구대회가 열려 리그와 토너먼트 방식의 축구경기와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신신하 문화정책과장은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부터 공연, 전시까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다”며 “광주 곳곳의 문화공간에서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교육청

‘초등 방과후·돌봄 플랫폼’ 개통

부산시교육청이 초등 방과 후·돌봄 관련 서비스를 한데 모은 초·중·고등 방과 후·돌봄 통합 플랫폼을 정식 개통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서비스는 부산 초·중·고등 방과 후·돌봄 지원센터, 방과후학교 업무지원시스템, 방과후학교 심사지원시스템, 늘봄학교 서비스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와 학교 업무 담당자가 각각 별도 계정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하나의 아이디로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진안군

20회 전북장애인체전 종합우승

진안군이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진안군에서 처음 열린 대회에서 거둔 성과여서 의미를 더했다.

진안군 선수단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안군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참가해 종목별 경기에서 고른 기량을 펼쳐며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선수들은 경기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쟁을 이어갔다. 꾸준한 훈련으로 다진 실력을 앞세워 종목별 경기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두며 종합우승을 이끌었다.

/진안(전남광주)=허남근 기자 nk1378@

영덕군

강구해상대교 정식 개통

영덕 강구지역의 새로운 교통축이 될 강구해상대교가 22일 오전 10시 개통했다.

2021년 11월 착공한 강구해상대교 건설공사 는 약 5년간의 공사 끝에 현재 전체 공정률 99%를 기록하며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강구리와 오포리 구간은 각각 2022년 8월과 12월 실착공에 들어갔다. 이후 2023년 6월 말 뚝공사를 완료했으며, 2024년 6월 교량 하부공과 같은 해 12월 IPC·DCB 방식의 거더 거치를 마쳤다. 지난해 8월에는 교량 상부공까지 완료했다.

현재 비(非)교량 구간 마무리 공사와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최종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김천에 ‘반도체 유리기관’ 생산거점 구축

제이엔티씨, 2030년까지 3470억 투자
430여명 신규 고용하고 사업 확대

경북도와 김천시는 21일 김천시청 강당에서 첨단 제조기업 ㈜제이엔티씨와 반도체 유리기관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제이엔티씨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약 3470억 원을 투자해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일원에 TGV 유리기관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430여 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김천을 차세대 생산거점으로 구축해 관련 사업도 확대한다.

TGV(Through Glass Via·유리기관 관통홀)는 유리기관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미세 전극과 배선으로 양면의 전기 신호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제이엔티씨는 글라스 절단, 레이저 글라스 관통, 에칭, 도금 등 TGV 핵심 공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TGV 유리기관과 HDD 유리플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상욱 제이엔티씨 회장, 배낙호 김천시장, 장상욱 제이엔티씨 회장과 임직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기업 수요에 맞는 부지를 제안하고 입지 검토부터 투자 협의까지 이어왔으며,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행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터 등 신제품 양산을 앞두고 있다.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낙호 김천시장, 장상욱 제이엔티씨 회장과 임직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기업 수요에 맞는 부지를 제안하고 입지 검토부터 투자 협의까지 이어왔으며,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행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 노후산단 66곳 ‘맞춤형 처방’ 나서

맞춤 사업 모델·대응 방안 마련

경남도가 노후 산업단지 66개소에 대한 실태 분석을 마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처방’에 나선다.

도는 올해 2월부터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추진한 ‘경상남도 노후산업단지 전수조사’ 및 ‘산업통상부의 노후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 연계형 사업모델 연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착공 후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2025년 12월 기준)는 국가 산업단지 7개소, 일반산업단지 9개소, 농공단지 50개소 등 66개소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올해 초부터 18개 시군과

노후 산업단지 66곳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산업단지별 기반시설 현황과 노후도, 기업·근로자의 개선 수요, 정부 공모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경남연구원 정책연구과제와 연계해 산업단지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분석하고, 향후 정부 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 모델과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경남연구원은 노후 산단 입지 여건과 시설 현황, 기업·근로자 수요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별 개선사업 모델로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청년유입형을 제시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해남~인천공항 직통 교통망 개통

고속버스 내달 1일 운행

해남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고속버스 노선이 오는 10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해남군은 군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해남~인천공항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본격 운행한다.

이번 노선은 금호고속이 운행하며, 해남을 출발해 영암을 거쳐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까지 연결하는 노

선으로 1일 1회 운행한다.

상행은 해남 00:05 출발 → 영암 00:35 → 인천공항 제1터미널 04:35 → 제2터미널 05:00 도착이며, 하행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07:50 출발 → 제1터미널 08:15 → 영암 12:30 → 해남 13:00 도착하는 일정이다. 운행요금은 6만3,300원이며, 심야 운행요금은 7만5,900원이다. 이번 노선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시외·고속버스 운임 9% 인상에 맞춰 운행을 시작한다.

/해남(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21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발표대회’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지역 어르신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르신 지혜는 충남의 소중한 자산”

충남도,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충남도가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경로당 기능 강화 등 노후 복지 증진에 나선다.

충남도는 2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박수현 지사와 조철기 도의회 의장, 이병도 도교육감, 박기영 도의회 부의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노인의날(10월 2일)을 앞두고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호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충남도와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시작으로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청려장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적박했던 들과 바다를 일구고 일터에서 땀 흘렸던 어르신 여러분의 노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삶의 지혜는 충남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추석연휴 더 즐겁게”… 유통업계, 팝업·공연 등 콘텐츠 확대

롯데백 내일 라리가 웹툰 팝업 오픈
스타필드 한가위 문화 바캉스 마련
신라면세점 ‘추구미 페스타’ 진행

긴 추석 연휴를 맞아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등 유통업계가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여행객 잡기에 나섰다. 단순 할인 행사에서 벗어나 스포츠·전통 문화·캐릭터 등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면세 프로모션도 확대하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롯데월드몰에서 ‘라리가 웹툰(LALIGA WEBTOON)’ 팝업스토어를 연다. FC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등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7개 구단과 소속 선수들을 웹툰 캐릭터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행사장은 캐릭터 갤러리와 스크린존, 스토어&커스텀존 등으로 구성하며 공식 라이선스 상품과 웹툰 캐릭터 굿즈도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쇼핑과 먹거리, 문화·놀이를 결합한 점포별 체험 콘텐츠를 선



스타필드 고양에서 진행되는 ‘K-컬처 위드 아시아’ 풍선 축제에서 어린이 모델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

보인다. 센텀시티에서는 아이스링크와 키자니아, 대구신세계에서는 트램폴린 체험 공간과 아쿠아리움, 대전신세계에서는 스포츠 체험시설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에서 오는 30일까지 전시·체험형 K로컬 팝업스토어 ‘에디트, 네오 로컬(Edit Dept, Neo Local)’을 열고 전국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20여개 브랜드를 소개한다. 판교점에서는 오는 26일부터 가을 숲을 테마로 한 ‘몽글몽글 가을 놀이터’를 운영해 미로 탐

험과 수확 놀이, 인터랙티브 게임 등을 선보인다.

롯데월드타워·몰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타워 외벽에 보름달과 달토끼를 소재로 한 미디어파사드를 송출한다. 서울 스카이에서는 글로벌 e스포츠 기업 T1과 함께하는 ‘T1 IN THE SKY’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는 산리오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과 AR 체험 등을 운영한다.

스타필드는 세계 문화와 한국 전통을 결합한 ‘한가위 문화 바캉스’를 마련했다.

현대백 신촌점, 매주 금요일 ‘K팝 무대’ 변신

내달부터 스타광장서 ‘신촌 K팝 쇼’
디바엑스·나빌레라 등 공연 예정

현대백화점 신촌점이 신인 아이돌들의 공연 무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부터 매주 금요일 신촌점 유플렉스(U-PLEX) 앞 스타광장에서 국내 중소기획사의 아이돌 그룹을 대상으로 ‘신촌 K팝 쇼’(Sinchon K-POP Show)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비정기적으로 K팝 공연 이벤트를 운영한 결과 매회 1000여 명의 관객이 찾으면서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신촌 K팝 쇼는 신인 아이돌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신촌점을 찾는 젊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 그룹의 무대를 비롯해 팬사인회, 포토타임 등 고객 참여 이벤트



지난 7월 28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고객들이 ‘엔카이브’ 무대를 관람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로 구성된다. 현대백화점은 무대 설치비와 운영비 등 행사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K팝 공연을 운영하는 동안 보이그룹 ‘트렌드지’와 ‘엔카이브’, 다국적 보이그

룹 ‘엠비오’ 등 총 8개 그룹이 무대에 올랐다”며 “아이돌 그룹 외에도 연습생·지망생을 위한 K팝 경연대회를 열어 온라인 예선에 전 세계 11개국 108개 팀이 참가했다”고 말했다.

경연대회 결선에는 15개 팀이 진출했으며 일부 참가자를 대상으로 큐브엔터테인먼트, 어트랙트, 모드하우스 등 국내 연예 기획사 5곳의 캐스팅도 진행됐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대학가의 젊은 유동인구와 K팝 콘텐츠를 결합해 신촌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신촌 K팝 쇼에는 다국적 걸그룹 ‘디바엑스’와 ‘나빌레라’, 보이그룹 ‘위웨이’ 등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해외 K팝 아카데미와 협업해 K팝 경연대회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현대그린푸드 ‘가매일식’ 브랜드 선포

조리명장 안유성 셰프 공동개발

현대그린푸드가 대한민국 조리명장 안유성 셰프와 손잡고 프리미엄 일식 외식 브랜드를 선보인다

현대그린푸드는 안유성 명장과 공동 개발한 일식 브랜드 ‘가매일식’을 오는 23일 현대백화점 판교점 9층 식당가에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에서 안 명장이 운영하는 일식당 ‘가매일식’의 레시피와 콘셉트를 기반으로 하되 판교 오피스 상권의 소비 특성에 맞춰 메뉴와 운영 방식을 새롭게 구성했다.

매장은 218㎡(약 66평) 규모로 60석과 3개의 별실(PDR)을 갖췄다. 메뉴는 40여 종으로 기존 가매일식의 전라도식 한상차림을 1인 단위 반상 형태로 재구성했다. 텀동정식, 가매초밥정식, 도미매운탕정식 등이 대표 메뉴다.

/신원선 기자

한우자조금, ‘한우 선물 대잔치’ 28억 매출

온라인 한우장터 역대최대 일매출

한우자조금이 추석을 앞두고 진행한 온라인 한우장터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일평균 매출을 기록했다. 고물가 속에서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우 상품을 찾는 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2030세대의 신규 고객 유입도 확대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10일 나흘간 진행한 추석맞이 온라인 한우장터 ‘2026 한우 선물 대잔치’에서 약 2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일평균 매출은 약 7억원으로 온라인 한우장터 개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신규 고객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체 구매 고객 가운데 첫 구매 고객 비중은 21.0%로, 지난 설과 가정의 달 행사 당시 15% 미만에서 크게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20대 첫 구매 비중이 39.2%, 30대가

30.4%로 집계돼 다른 연령대 최고치인 23.2%를 웃돌았다. 전체 구매 고객에서는 4050세대가 약 59%를 차지했다.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온라인 마케팅도 강화했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와 인플루언서 연계 마케팅을 확대하고 신규 가입 및 첫 구매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했다. 행사에서 처음 선보인 한우 선물세트 2종은 모두 판매됐으며, ‘투빨 등급 한우 진심 선물세트’는 행사 이틀남 오전 조기 품절됐다.

한우자조금은 1~1++등급 등심·채끝·특수부위 등 구이류와 사골·떡갈비·곰탕 등 부산물·가공품을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해 선택 폭을 넓혔다. 한우자조금은 오는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을 앞두고 10월 말 온라인 한우장터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고양과 하남에서는 별론 아트를 활용해 한국과 아시아 각국의 문화와 세계 주요 랜드마크를 표현한 전시를 선보인다.

롯데아울렛·몰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롯데아울렛 전점과 롯데몰 6개 점에서 ‘그랜드 쇼핑 페스타’를 진행한다. 가을·겨울 시즌 패션과 스포츠 상품 할인과 함께 ‘멜로우TV’, ‘넘버블록스·알파블록스’, ‘하리보’ 등 키즈·캐릭터 IP를 활용한 체험형 팝업을 점포별로 운영한다.

신세계사이먼은 오는 27일까지 여주·파주·부산·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홀리데이 메가 딜(Holiday Mega Deal)’을 진행한다. 여주에서는 한국민속촌 전통 공연, 시흥에서는 낙화놀이, 파주에서는 양주별산대놀이, 부산에서는 동래야류 공연 등 ‘K-헤리티지’ 콘텐츠를 선보인다.

영등포타임스퀘어는 가을 시즌과 추석 연휴를 맞아 ‘FALL in Style(폴 인 스타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자라와 H&M, 에잇세컨즈 등 국내외 패션 브랜드가 할인 행사에 참여하며 스와오와 COS는 리뉴얼 매장을 선보인다. 1층 아트리움에서는 스와오 IP와 모던하우스&버터팝업

스토어도 운영한다.

면세업계도 추석 연휴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프로모션에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다음달 11일까지 인터넷면세점에서 ‘FALL IN SALE’을 진행하고, 시내점에서는 국내외 롯데면세점의 혜택을 연계한 ‘ONEPASS’를 운영한다. 미카오와 필리핀 항공권·숙박권 등을 제공하는 여행 연계 경품 행사도 마련했다.

신라면세점은 다음달 11일까지 ‘추(秋) 구미 페스타’를 진행한다.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유형 테스트를 통해 고객의 쇼핑 성향을 16개로 분류하고 결과에 따라 쿠폰과 선불 혜택 등을 제공한다. 쇼핑 성향별 추천 상품과 추석 선물 상품을 소개하는 기획전도 운영한다.

현대면세점은 다음달 11일까지 ‘현대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무역센터점에서 구매 금액별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인천공항점에서는 랑콤·답디크·갤랑 등 글로벌 뷰티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하이트진로, 주류업계 최초 ‘울트라 재팬’ 참가

참이슬 과일소주 활용 RTD 제품 선봬

하이트진로가 일본 최대 규모의 EDM 페스티벌 ‘울트라 재팬 2026’에 처음 참가하며 일본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현지 마케팅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9~20일 도쿄 오다이바 울트라 파크에서 열린 울트라 재팬 2026에 국내 주류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행사장에 진로(JINRO) 브랜드 부스를 마련하고 참이슬 과일소주를 활용한 RTD(Ready To Drink) 제품을 선보였다.

현지 행사 주류 판매 기준에 맞춰 참이슬 과일소주와 탄산수 등을 조합한 청포도·레몬·매론 맛 RTD를 구성했다. 참이슬과 레드불을 활용한 제품도 함께 판매했다. 제품은 360ml 용기에 담아 판매했으며, 2잔 이상 구매 고객에게 스트랩 완충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울트라 재팬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시작된 EDM 페스티벌 ‘울트라 뮤직 페스티



하이트진로, ‘울트라 재팬 2026(ULTRA JAPAN 2026)’ 현장 부스. /하이트진로

벌’의 일본 행사로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19~20일 이틀간 도쿄 오다이바 울트라 파크에서 열렸으며 세계 각국의 DJ들이 무대에 올랐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일본 젊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진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지 소비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11번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

4만여개 숙박상품 할인 혜택 제공

11번가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가을편’에 참여해 4만여 개 국내 숙박상품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11번가는 중소여행사 연합지원 형태로 이번 행사를 운영해 중소여행사의 판로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11번가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숙박페스타’ 쿠폰을 발급한다. 이번 쿠폰은 숙박상품 예약 금액과 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3종으로, 이 가운데 1장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쿠폰은 서울·경기·인천·세종·충북을 제외한 지역 숙박상품 예약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 한정 수량으로 운영된다.

추가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숙박페스타 쿠폰과 중복 적용할 수 있는 카드사 추가 할인을 제공하며, 중소여행사 숙박상품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할인쿠폰도 발급한다.

온다, 종이비행기투어, 트립일레븐 등 중소여행사 10곳과 함께하는 특별 기획전도 진행한다. 기획전에서는 소노호텔앤리조트, 금호리조트, 세인트존스 등 숙박상품을 선보인다.

또 고객들이 숙박페스타 대상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행사 상품에 전용 표시를 적용하고, 검색 시 해당 상품을 모아볼 수 있는 검색 필터 기능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점심·저녁은 포화… F&B업계, 아침시장서 돌파구 찾는다

패스트푸드, 조식 메뉴 운영 확대
카페는 샌드위치 등 식사 메뉴 강화
추가 투자 없고 장비·인력 재활용

외식 및 식음료(F&B) 브랜드들이 아침 시간대 영토 확장으로 사업 방향을 틀고 있다. 점심·저녁 시간대의 시장 경쟁이 정점에 도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공백이었던 조식 구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장을 새로 열지 않고도 남는 시간대의 가동률을 끌어올려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모닝 시장’ 들썩이는 패스트푸드

조식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곳은 패스트푸드 업계다. 오랫동안 시장을 독점해 온 맥도날드 ‘맥모닝’의 뒤를 이어 후발 주자들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버거는 21일부터 서울 성수점 매장에서 브랜드 최초로 아침 전용 메뉴 2종(‘베이컨 포테이토 에그 모닝’, ‘머쉬룸 치즈 에그 모



F&B 브랜드들이 조식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점심, 저녁 시간대의 판매 경쟁이 치열하자 아침 메뉴 판매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닝’의 테스트 판매에 돌입했다. 평일 오전 7시 반부터 11시까지 운영되며 1200원을 더하면 음료가 포함된 콤보로 구성되어 직장인들의 바쁜 출근길을 겨냥했다. 신세계푸드는 성수동 유동인구의 반응을 살

핀 뒤 전국 매장으로의 확장 여부를 가늠할 예정이다.

기존 라이벌들의 걸음도 바빠졌다. 버거킹은 아침 메뉴 취급 매장을 58곳에서 120곳 넘게 대폭 늘렸으며, ‘크루아상위

치’를 앞세워 초기 목표보다 3배 이상 많은 판매량을 달성했다. 롯데리아 역시 ‘미아모닝’ 도입 매장을 두 배 가까이 넓혔고, 맥도날드는 고단백 닭가슴살을 넣은 신제품으로 맞섰다. 맘스터치 역시 일부 직영점에서 모닝 세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커피점, ‘식사되는 카페’로 체질 개선
커피 전문점들 역시 음료 중심의 매장 구조에서 벗어나 ‘아침 한 끼’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오전 10시 반까지 제공하는 ‘모닝 세트’에 ‘K-에그바이트’ 같은 푸드 옵션을 강화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캐나다 브랜드 팀홀튼은 본사 셰프가 개발한 칠리 수프와 함께 멜트 샌드위치, 브런치 세트 등 식사 대응 라인업을 앞세워 아침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다.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삼양식품과 손잡고 출시한 ‘불닭 치즈 멜트 파니니’가 파니니군 전체 매출을 전년 대비 40%가량 견인하자 ‘불닭 콘치즈 파니니’와 ‘불닭

치킨 바게트 샌드위치’ 등을 추가로 선보이며 든든한 식사 메뉴를 대폭 늘렸다.

◆고정비 부담 덜고 유희시간 활용

외식업계가 아침 시간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고정비 부담을 줄이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자리 잡고 있다.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매장 영업시간을 앞당기거나 전용 메뉴를 선보이는 방식은 추가적인 대형 투자 없이 기존 장비와 인력을 재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출근길이나 등교 시간에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간편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가 많지 않았다”며 “기업 입장에서서는 매장 유희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만큼 아침 식사 시장을 둘러싼 F&B 기업들의 선점 경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셀트리온, 송도 3공장 생산 142% 확대

25만L 생산시설 EU-GMP 갱신
생산 효율 개선 통해 수익성 강화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캠퍼스 내 총 25만 리터 규모의 원료의약품(DS) 및 완제의약품(DP) 생산시설에 대한 유럽의약품청(EMA)의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EU-GMP) 갱신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 송도캠퍼스 전체 생산량을 전년 대비 약 15% 확대해 제품 판매 증가에 대응하고 생산 효율 개선을 통해 수익성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EU-GMP 갱신 대상은 송도 1공

장, 2공장, 3공장 총 25만 리터 규모의 DS 생산시설과 이외 DP 생산시설이다. 셀트리온은 유럽 규제당국의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재확인함으로써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품질 기반을 공고히 했다.

특히 2024년 말 상업 생산에 돌입한 3공장의 생산 안정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송도캠퍼스의 생산량 확대를 이끌고 있다. 셀트리온은 3공장에서 올해 총 128배치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42% 증가한 규모다.

3공장 생산 확대를 포함한 송도캠퍼스 전체 생산량도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할

것으로 회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확대된 생산 기반을 활용해 기존 주력 제품뿐만 아니라 신규 허가 제품의 시장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관계자는 “송도캠퍼스 생산시설의 EU-GMP 갱신은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품질 경쟁력과 생산 기반을 다시 한번 확정한 결과”라며 “올해 3공장을 중심으로 송도 생산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 DP공장, 고역가 공정 및 미국 생산거점을 활용해 공급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GC녹십자웰빙, 보령과 ‘라이넥주’ 공동판매

2차 병원 처방 확대

GC녹십자웰빙이 보령과 함께 만성간질환 치료제 ‘라이넥주’의 2차 병원 처방 영토 확장에 나선다.

GC녹십자웰빙은 보령과 인태반기수분해물 주사제 ‘라이넥주’의 2차 병원 대상 공동판매(코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GC녹십자웰빙의 독보적인 제품력에 보령이 보유한 강력한 병원 유통망을 더해 시장 안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GC녹십자웰빙은 라이넥주 제품 공급, 마케팅, 임상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보령은 전국 2차 병원 네트워크 및 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라이넥주 처방 확대와 판매를 전담한다.

GC녹십자웰빙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었던 라이넥주의 처방 인프라를 종합병원급 2차 병원으로 대폭 확장하고, 만성간질환 치료 시장 내 지배력을 단단히 굳힌다는 구상이다.

라이넥주는 전문의약품으로 사람의 태반을 원료로 한 인태반기수분해물 주사제다. 만성간질환 환자의 간기능 개선에 쓰인다. 최근 고용량 점적정맥(IV) 투여 임



보령 배상호 병원본부장(왼쪽부터), 보령 정웅제 부사장, GC녹십자웰빙 김상현 대표, GC녹십자웰빙 한정영 IP본부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C녹십자웰빙

상 3상에서 기존 피하투여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수치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이에 따라 정맥투여 용법으로 처방 기반을 넓히게 됐다.

김상현 GC녹십자웰빙 대표는 “보령의 2차 병원 영업 역량이 결합해 라이넥주의 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처방 접근성을 높여 만성간질환 치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웅제 보령 부사장은 “오랜 기간 검증받은 라이넥주의 제품력에 보령의 병원 영업 노하우를 더해 2차 병원 시장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제일약품, 자큐보 호조에 생산시설 확충

백암공장 249억 들여 증축 공사

자체 신약 ‘자큐보’의 가파른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제일약품이 200억원 넘는 대규모 시설 투자를 통해 생산 역량을 강화했다.

제일약품은 경기 용인에 위치한 ‘백암공장’의 고품형제 증축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허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총 249억원을 투입하며 2024년 11월 개편 설계를 시작으로 약 2년에 걸쳐 생산 시설 확충을 진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 생산시설은 백암공장 3·4층에 걸쳐 총 4461㎡(약 1350평) 규모로 들어섰다. 정제, 캡슐제 등 내용고형제 생산을 위한 청랑, 혼합, 과립, 타정, 코팅, 포장 전 과정의 최첨단 설비가 갖춰졌다. 설비 구축이 완료 마무리되면 제일약품의 내용고형제 생산능력(CAPA)은 기존 대비 약 71%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제일약품은 신약 판매 호조에 따른 생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제일약품의 위식도역류질환 치



제일약품 백암공장 고품형제동 전경 /제일약품

료제 ‘자큐보’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64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52% 급증했다. 확장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제품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향후 신약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수출 물량 확대도 확보할 수 있다.

생산 효율성 개선과 원가 경쟁력 제고에도 중점을 뒀다. 신규 시설에 발딩 관리 시스템, 창고 관리 시스템 등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탑재해 수율 개선과 제조원가 절감을 동시에 이뤄낸다.

또 국내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품질 경영 기반을 다졌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체취 원인균 잡는 ‘데오리셋 바디워시’

애경산업, 제로시스군 99.97% 사멸

애경산업이 체취 원인균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전용 바디워시를 선보인다. 애경산업은 위생 전문 브랜드 랩스에서 ‘제로시스 데오리셋 바디워시’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땀과 피지 등 노폐물이 체취 원인균 ‘제로시스균’과 결합해 발생하는 냄새를 잡는다. 인체적용시험에서 해당 제품 9초 사용으로 제로시스균이 99.97% 사멸하는 항균 효과가 나타났다. 부위별 체취 개선을 역시 귀 뒤 96%, 목 97%, 겨드랑이 98% 각각 95%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사용감과 유분 세정력도 갖췄다. 멘톨 성분을 함유해 샤워 직후 피부 온도를 최대 8℃ 내려주는 냉각 효과를 구현한다. 또 사용 후 피부 유분과 피지량을 약 77.8% 줄여 미끌거림 없는 잔여감을 경험할 수 있다.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일상에서 매일 사용 가능하며 상쾌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시트러스 허브향을 적용했다.

/이청하 기자

20주년 ‘잘크톤’… 조아제약, 신제품 선포

성장기 어린이 영양 관리 도와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하며 어린이 영양제 시장을 이끌어온 조아제약의 ‘잘크톤’이 한층 강화된다. 조아제약은 성장기 어린이의 균형 잡힌 영양 관리와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잘크톤 에스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마그네슘, 아연, 나이아신, 비타민B2·B6 등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성분을 함유한다. 체내 에너지 생성과 정상적인 면역기능, 신경근육 기능 유지를 돕는다. 또 베타인,

이노시톨, L-아르지닌, 연어아미노산, 파인애플추출분말 등 엄선된 부원료를 균형 있게 배합해 다각도로 영양을 채웠다.

용기의 안전성과 편의성도 갖췄다. 조아제약이 독자 구축한 특허 용기인 ‘조아세피지 앰플’을 적용해 내구성과 휴대성을 끌어올렸다. 미국 약전(USP) 최고 등급인 플라스틱 Class VI 소재를 사용한 이 용기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32개 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했다. 국가공인시험기관(KOTITI)을 통해 환경호르몬 불검출 인증까지 마쳐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그네슘, 활성비타민 B군
비타민 E, 감마오리자놀까지

맥스로 콱! 약으로 콱!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 신경통완화 · 육체피로 · 체력저하

마그비 맥스[®]

연질캡슐



KT-NIA, AI 기반 포용적 디지털 전환 MOU

KT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AI 기반 포용적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KT ESG추진 담당 이정우 상무(왼쪽), NIA 장경미 부원장이 글로벌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에이피알, AI 경영시스템·제품 경쟁력 입증

에이피알은 최근 AI 경영시스템 'ISO/IEC 42001' 인증과 노르웨이 뱀코의 'AI 제품 신뢰성 마크'를 모두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세계 뷰티 기업 중 두 개의 AI 관련 국제 인증을 동시에 확보한 곳은 에이피알이 처음이다. /에이피알



보령-이판제약, 2.7억弗 규모 탁소텔 공급 계약

보령은 중국 제약 기업 '이판제약(Yifan Pharmaceutical)'과 중국 시장에 탁소텔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총 7년이며, 계약 규모는 총 2억7714만4985달러다. 보령 김정균 대표(오른쪽 두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령



hy-서울시, '기부하는 건강계단' 운영 업무협약

hy가 서울시와 '기부하는 건강계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y는 이용 실적에 따른 기부금 조성과 건강응모 지원을 맡고, 서울시는 계단 운영·관리와 기부 대상자 선정을 담당한다. hy는 계단 이용자가 건강관리와 기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hy



동아에스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동아에스티는 '202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Best HRD) 인증수여식'에서 민간 대기업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행복경영실 인사팀 김법석 팀장(오른쪽)과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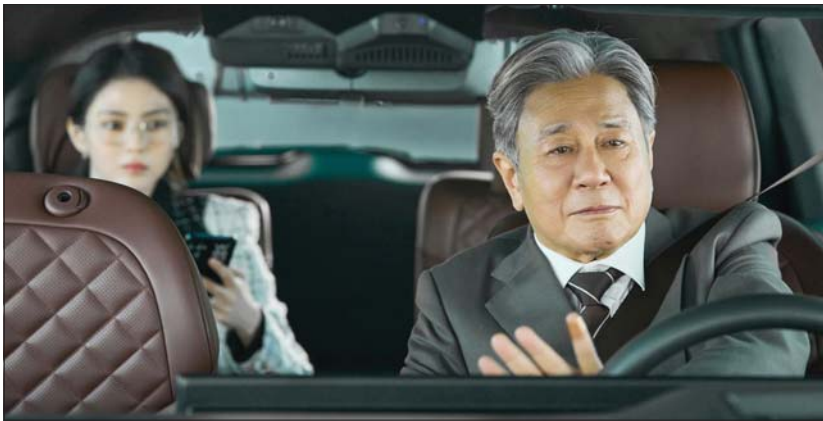
영화 속 기업 대표 차... 제네시스 'GV80' 이목집중

인턴 속 패션기업 대표 차량 등장
편안한 이동·휴식 취하는 공간 상징

현대자동차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 GV80이 영화 '인턴'에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제네시스 GV80은 16일 개봉한 인턴에서 패션기업 대표 '선우' 역할을 맡은 배우 한소희의 차량으로 등장한다. 선우와 실버 인턴 '기호' 역의 최민식과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 극의 전개와 차량의 외관과 실내를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특히 선우가 기호에게 도움을 받으며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기 시작하는 장소가 되는 GV80은 극 초반 어색



영화 '인턴' 스틸컷.

하고 불편했던 공간에서 점차 편안한 이동과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변해간다.

인턴은 10월 16일부터 홍콩·인도네

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대만·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시아 9개국에서도 개봉한다.

제네시스는 해외 관람객과 브랜드

점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영화 인턴을 통해 GV80의 디자인과 럭셔리 감성을 스크린에서도 선보이게 됐다"며 "다양한 협업을 바탕으로 브랜드 경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브랜드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인 GV80 하이브리드를 다음달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최고출력 352마력, 최대토크 54.0kgf·m를 발휘한다. GV80 2.5터보 대비 최고 출력은 16%, 최대토크는 26% 향상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AIST, 권오현 신임 이사장 선임

(前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

삼성전자 초격차 이끈 반도체 전문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임 이사장에 권오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 이사장(사진)이 선임됐다. 세계 최초 64Mb D램(DRAM) 개발을 이끌며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을 이끈 반도체 전문가가 KAIST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됐다.

KAIST는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 298회 임시이사회에서 권 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이사회 의결일인 지난 21일부터 이사 임기가 끝나는 2029년 8월 19일까지다. KAIST 이사회는 지난 6월 말 김명자 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차기철 이사(인바디 대표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권 이사장은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전기공학석사,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 미국 삼성반도체연구소 연구원으로 삼성에 합류한 뒤 1992년 세계 최초 64Mb D램 개발을 이끌었다.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 대표이사 부회장, 대표이사 회장 겸 종합기술원 회장 등을 거치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끈 엔지니어 출신 전문경영인이다.

권 이사장은 지난 8월 제297회 임시이사회에서 KAIST 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한 달 만에 이사장을 맡게 됐다.

/이현진 기자 lhj@

삼성전자서비스, 추석연휴 긴급수리 지원

서비스 계획 밝혀... 방문 전 확인 필요

삼성전자서비스가 추석 연휴에 휴대전화 수리와 냉장고 긴급출장을 지원한다. 모바일 제품은 수리와 간단 점검을 맡는 곳이 달라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2일 추석 연휴 서비스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일반 서비스센터는 24일과 추석 당일인 25일 휴무다. 26일과 27일에는 전국 9개 주말케어센터에서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을 수리한다. 주말케어센터 운영 시

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말케어센터는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가전제품과 컴퓨터는 수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은 '바로 서비스' 매장에서 받을 수 있다.

냉장고의 냉장·냉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상담사와 출장 엔지니어가 연휴 기간 비상당직 체계로 근무한다. 일반 서비스센터는 28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다만 연휴 직후에는 이용자가 몰려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ngja_lee@

현대차 정몽구 재단, 내달 '온소 페스티벌'

명동일대 공간 확장... 참여 대상 확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온소 페스티벌'의 무대를 명동 일대로 넓히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복합문화축제를 선보인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오는 10월 7~10일 온드림 소사이어티와 명동 일대에서 '2026 ONSO FESTIVAL'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각자의 속도로 우리는 연결된다'로 강연·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온소 페스티벌은 재단이 운영하는 소셜 임팩트 플랫폼 '온드림 소사이어

티'의 대표 축제다. 올해는 명동대성당과 가톨릭회관 앞마당 등으로 공간을 확장하고, 참여 대상도 청년 중심에서 전 세대로 넓혔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관계자는 "2026 ONSO FESTIVAL은 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명동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만나 음악과 예술, 이야기와 체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는 축제"라며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속도를 존중하고 응원하자는 축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한국타이어, '2026 걸프컵' 파트너 참여

글로벌 통합 브랜드 '한국' 소개

한국타이어가 중동 스포츠 후원을 국가대표팀 대항전으로 넓히며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나선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는 오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리는 '2026 걸프컵'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27회를 맞는 걸프컵은 걸프컵 축구연맹(AGCFF)이 주관하는 축구대회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쿠웨이트·바레인·오만·이라크·예멘 등 8개국 국가대표팀이 참가한

다.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과 프린스 압둘라 알 파이스알 스타디움에서 총 15경기가 열린다.

한국타이어는 경기장 LED 광고와 대형 스크린, 미디어 백드롭 등을 통해 글로벌 통합 브랜드 '한국(Hankook)'을 알린다. 소셜미디어 캠페인과 팬 참여형 경품 이벤트를 운영하고, 주요 고객과 현지 사업 파트너를 대회 현장에 초청해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후원으로 알 아인 FC와 카타르 스타스 리그 등 클럽·리그 중심이던 중동 파트너십을 국제대회로 확장한다.

/이승혁 기자

파능스쿨, 케냐 식수펌프 수리 사업 마무리

지난해 NGO 팀앤티م 후원금 전달

AI 아트 교육 전문기업 파능스쿨이 후원한 케냐 식수 펌프 수리 사업이 마무리됐다.

파능스쿨이 지난해 식수위생 전문 비정부기관(NGO) 팀앤티에 지난해 전달한 후원금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해당 마을 주민 300명은 다시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됐다.

파능스쿨은 팀앤티를 통해 케냐 타나리버 지역 아바간다 C 마을의 고장난 식수 펌프를 고친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비

는 파능스쿨이 2025년 상반기에 운영한 '100일 챌린지'와 함께 성장 챌린지' 전시에서 수강생과 작가들이 함께 모은 기금으로 마련됐다.

팀앤티 현지 수리팀은 마모된 스텐로드와 푸트 밸브, 플런저 등 주요 부품을 새 자재로 교체한 뒤 테스트 펌프과 수질 분석을 거쳐 수리를 마쳤다. 수리 후에는 마을 수자원위원회에 펌프 관리법과 수리 공구 사용법을 교육하고 수리 키트를 전달했다. 수리된 펌프에는 파능스쿨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이 부착됐다.

/김보민 기자 kbm@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AI 시상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SW·AI 산업의 발전과 국가 AI 대전환(AX)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을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시상 개요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에 부응하여, 기술 혁신과 실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술·제품 및 서비스,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 기술 연구개발(R&D)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포상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 메트로경제

후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시상 부문

시상 부문	시상 대상
제품·서비스 부문	우수 국산 SW·SaaS·AI 제품 및 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적용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인재 부문	기술개발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개인

AI 활용 우수사례란?

AI기술을 실제 업무 또는 산업 현장(공공·민간)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성과와 가치를 창출한 우수 사례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춘 사례를 말합니다.

- ✓ AI를 적용하여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생산성 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
- ✓ 국민·고객 편의 증진,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안전·환경 개선 등 정량·정성적 성과가 확인되는 사례
- ✓ 타 기관·기업으로의 확산·적용 가능성이 높고, 사회·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례
- ✓ AI 윤리·신뢰성·보안 등 책임 있는 AI 원칙을 준수한 사례



시상 내역

총 13점 내외
(예정)

구분	시상 내역
부총리상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기관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언론·단체장상	메트로경제, 전자신문, 한국SW·ICT총연합회장



신청 안내

접수마감 : 2026. 9. 30.(수) 18: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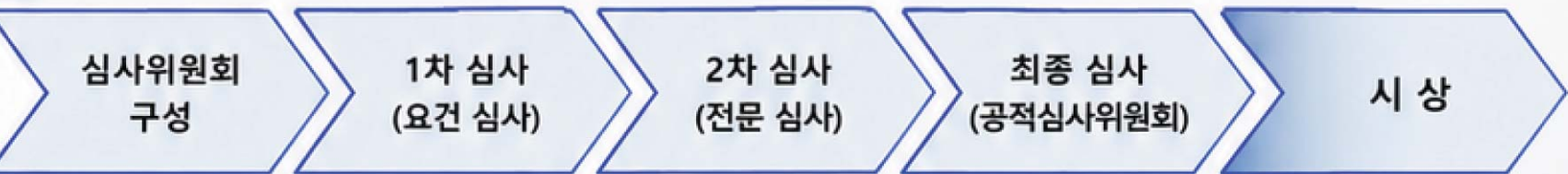
접수방법 : 한국SW·ICT총연합회 이메일 (awards@kswict.or.kr)

제출서류 : 부문별 포상 신청서, 공적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신청 자격,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관련 서식 등 세부사항은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안내서」 참조
안내서 및 신청 관련 서식 : 한국SW·ICT총연합회 홈페이지(www.kswict.or.kr)에서 확인·다운로드

시상 : 2026년 11월 예정

심사 절차



문의 사항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02-858-8510)

공정위-법원 대립... 소비자가 바라는 것은?



한 용 수 역
돌직구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와 법원이 유례없는 정면 대립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기업들을 겨냥해 내린 행정처분과 현장조사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내린게 발단이다.

공정위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불응하고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화 역시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두 사건 모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 밀가루·전분당 업체들의 담합을 제재하면서 이례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라는 취지다. 이 명령 역시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

가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대기업 총수의 동일인 지정 변경을 둘러싼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한 간담회에서 현장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경제적 약자의 최후 보루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에 대해서도 "회복할 수 없는 침해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소비자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양쪽의 불이익을 공정하게 따져 달라고 요구했다. 조사 규칙을 고쳐 조사를 피할 여지를 없애겠다는 계획도 내놔다.

각자의 역할만 놓고 보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기업으로서 행정기관의 처분이 옳은지 법원에 묻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는지를 신중히 따진다. 공정위도 담합을 적발하고 시장 가격을 바로잡으려는 책무를 다하고 있다.

우려되는 지점은 공정위와 법원의 대립 구도가 굳어지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수장이 진행 중인 사법 판단을 두고 대응을 예고한 만큼, 법원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공정위의 주장이 옳다면 그 근거는 법정에서 증거와 논리로 입증하면 될 일이다. 여론전으로 비칠 여지를 남기는 것은 어느 쪽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 행정조치의 신뢰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조사 절차상 특이점이 없다"고 했지만, 기업들이 잇따라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가볍지 않다. 조사 강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져 거래 구조가 흔들린다는 불만도 나온다. 공정위는 규칙을 손볼 때 기업의 방어권을 함께 살펴야 한다. 조사를 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과 절차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일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할 과제다.

집행정지가 길어지면 담합 가격이 유지되고 소비자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안에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기업이 입는 피해도 크다. 어느 쪽이든 본안 판단이 늦어질수록 손해다.

공정위의 행정 집행 권한과 기업의 방어권은 어느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지는 관계가 아니다. 공정한 시장은 강한 집행과 공정한 절차가 함께 있을 때 만들어진다. 법원의 제동을 '무력화'로 받아들이기보다, 처분과 조사 절차를 더 단단하게 다듬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사법부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헤아려 판단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세 주체가 각자 자리에서 제 몫을 하되, 서로를 겨누지 않는 것. 그것이 소비자와 시장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세종=hys@metroseoul.co.kr

대입 원서접수, 책임 구조부터 바로 세워야



김 수 정
(유통·라이프부)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이 또 멈췄다. 지난 11일 수시모집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오후 5시50분경 유웨이 접수 시스템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접수마감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예정된 시간에 경쟁률을 공개했고, 접수를 놓친 수험생과 연장 기간에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수험생이 뒤섞이며 형평성 논란으로 번졌다.

시스템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정시모집 마감일에는 유웨이·어플라이뱅크·어플라이114 등 원서접수

대행업체 3곳의 서버가 마비됐다. 당시 교육부는 접수기간을 하루 연장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했다.

대입 원서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등 민간업체가 대학과 계약해 대행한다. 민간 업체 두 곳이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줄곧 이어져 왔지만, 정부는 좀처럼 바로잡지 못했다. 2013년에는 교육부와 대교협이 대입 원서접수를 통합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으나 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됐다. 교육부는 대학과 업체 간 계약 관계를 이유로 직접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왔다.

이번 사고로 구조의 빈틈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교협의 장애 대응 매뉴얼에는 접수연장이나 장애 사실을 수험생에게 언제 어떻게 알릴지, 이미 공개된 경쟁률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경쟁률 공개로 발생한 정보격차를 해소할 방법은 없었던 것이다. 원서접수 과정에 여러 주체가 관여하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질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해 구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354건의 구제를 확정하고 경쟁률 확인 후 지원한 3건에는 대학에 취소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 원서접수 체계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것만으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사고 시 대응 기준과 명확한 책임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

공적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침해받지 않도록, 믿을 수 있는 입시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한다. /kcrystal@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3일 (음 8월 1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소망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60년생 짝잘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72년생 동료의 유혹에 동조되지 마세요. 84년생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49년생 아직 귀하의 때가 아닐 것입니다. 61년생 여태껏 노력을 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73년생 만사가 평온한 시기입니다. 85년생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이로울 것입니다.



50년생 많은 이득이 따르는 계약 건이 체결됩니다. 62년생 유명한 회사에 특채로 입사하게 되겠습니다. 74년생 일이 많아지나 마음은 편안합니다. 86년생 누구나 때가 있는 법입니다.



51년생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63년생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합니다. 75년생 고집부리지 마세요. 87년생 부주의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52년생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64년생 뒷사람의 충고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76년생 하늘에서도 복을 내리는 형상입니다. 88년생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53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65년생 자손들이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77년생 사업이 번창일로에 있습니다. 89년생 남성은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며 여성은 출가를 합니다.



54년생 분수껏 행동하는 것이 유익 하리라 봅니다. 66년생 본인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볼 때입니다. 78년생 권력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90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55년생 귀하 혼자 힘으로 버거운 사업입니다. 67년생 모든 것은 항상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79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조심하세요. 90년생 무사 튼튼하게 노력하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56년생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68년생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세요. 80년생 겸손함을 잊지 마세요. 92년생 전업이나 취직 등은 어려운 운입니다.



57년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유리합니다. 69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을 것입니다. 81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93년생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58년생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으니 분명히 이루게 됩니다. 70년생 꾸준한 노력으로 이겨 내야 합니다. 82년생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겠습니다. 94년생 성공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59년생 장거리 여행에도 장애가 없습니다. 71년생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83년생 늦은 귀가는 금물입니다. 95년생 직장내에서의 구설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회의四季 재(齋)와 제(祭)

병오년의 8월27일 백중제는 서오릉 위치한 지역 여건이 허락지 않아 조금은 협소하지만 충청로월광사에서 오순도순 재를 모셨다. 마음이 모인 정성이라면 장소의 대소에 재의 공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에, 진심을 담아 회향하는 시간이었다. 필자 역시 감사함을 회향하였다. 백중제가 끝나고 점심 공양을 하는데, 신도 한 분이 묻는다. "원장님, 우리가 보통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는 '제'라고 하는데, 백중제는 '재'라고 하잖아요? 제와 재는 어떻게 다른 거지요?" 비록 제사 풍속이 점점 사라져 가고는 있어 그 뜻을 잘 모른다 해도 이상할 일은 아니지만,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가볍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한국인들에게 있어 유교 전통하에서 제사는 매우 중요한 풍속이다.

이렇게 제사(祭事)라고 할 때는 제사 제(祭)자를 쓰는데, 제사(祭祀)는 신령이나 사망한 조상의 혼령 등에게 제물을 바쳐 예를 표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기제사(忌祭事)처럼 매년 돌아가신 날을 기일(忌日)로 하여 지내는 제사를 기제(忌祭)를 지낸다. 기제를 올린다고 하며 조상님들 돌아가신 날을 기리는 것이다. 백중제, 천도제처럼 일반 가정이 아닌 사찰이나 암자에 서 돌아가신 선망 조상이나 특정 조상을 위하여 올리는 제사는 재(齋)라고 하지, 제(祭)라고 하지 않는다. 차리는 음식이 차이가 있다. 일반 가정에서 선망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위하여 제사를 올릴 때는 고인이 생전에 일상적으로 즐기던 음식 위주로 차리는 것이기에 나물이나 과일은 물론 생선이나 육류 산적 등 고기류를 올린다. 절에서는 천도를 위하여 올리는 상에 희생물인 육류나 생선류는 올리지 않는다. 또한, 살생을 금하는 전통은 물론이거니와 부처님의 법문과 의식으로 영가를 천도한다는 뜻이 더 강하므로 공손하며 삼간다는 뜻의 '재'(齋)자를 쓰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1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 기획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2	4	9					
					4			
7		2					1	
1		6						8
	7		4			1		
9				3			5	
4				1			3	
	8							
			5	7	6	4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4							7
			1	6				9
					2			
		7		8				9
	6		5		1		4	
	2			9		8		
2			6					
			1	3				
5							3	1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7	9	2	9	6	1	2	8
1	2	9	7	2	8	9	9	6
6	8	2	1	9	8	9	7	2
7	9	2	8	8	1	9	6	2
9	2	1	6	7	9	2	8	8
8	8	6	2	2	9	7	1	9
9	1	8	9	8	2	6	2	7
2	6	7	8	1	2	8	9	9
2	9	8	9	6	7	2	8	1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8	6	8	7	2	9	2	9
8	9	9	8	1	2	7	6	2
2	2	7	6	9	9	8	8	1
9	1	8	2	6	7	9	2	8
8	7	2	1	2	9	8	9	6
9	6	2	9	8	8	2	1	7
7	9	1	2	2	8	6	8	9
6	8	8	7	9	1	2	9	2
2	2	9	9	8	6	1	7	8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7	9	2	9	6	1	2	8
1	2	9	7	2	8	9	9	6
6	8	2	1	9	8	9	7	2
7	9	2	8	8	1	9	6	2
9	2	1	6	7	9	2	8	8
8	8	6	2	2	9	7	1	9
9	1	8	9	8	2	6	2	7
2	6	7	8	1	2	8	9	9
2	9	8	9	6	7	2	8	1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8	6	8	7	2	9	2	8
8	9	9	8	1	2	7	6	2
2	2	7	6	9	9	8	8	1
9	1	8	2	6	7	9	2	8
8	7	2	1	2	9	8	9	6
9	6	2	9	8	8	2	1	7
7	9	1	2	2	8	6	8	9
6	8	8	7	9	1	2	9	2
2	2	9	9	8	6	1	7	8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7	9	2	9	6	1	2	8
1	2	9	7	2	8	9	9	6
6	8	2	1	9	8	9	7	2
7	9	2	8	8	1	9	6	2
9	2	1	6	7	9	2	8	8
8	8	6	2	2	9	7	1	9
9	1	8	9	8	2	6	2	7
2	6	7	8	1	2	8	9	9
2	9	8	9	6	7	2	8	1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8	6	8	7	2	9	2	8
8	9	9	8	1	2	7	6	2
2	2	7	6	9	9	8	8	1
9	1	8	2	6	7	9	2	8
8	7	2	1	2	9	8	9	6
9	6	2	9	8	8	2	1	7
7	9	1	2	2	8	6	8	9
6	8	8	7	9	1	2	9	2
2	2	9	9	8	6	1	7	8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8	6	8	7	2	9	2	8
8	9	9	8	1	2	7	6	2
2	2	7	6	9	9	8	8	1
9	1	8	2	6	7	9	2	8
8	7	2	1	2	9	8	9	6
9	6	2	9	8	8	2	1	7
7	9	1	2	2	8	6	8	9
6	8	8	7	9	1	2	9	2
2	2	9	9	8	6	1	7	8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8	6	8	7	2	9	2	8
8	9	9	8	1	2	7	6	2
2	2	7	6	9	9	8	8	1
9	1	8	2	6	7	9	2	8
8	7	2	1	2	9	8	9	6
9	6	2	9	8	8	2	1	7
7	9	1	2	2	8	6	8	9
6	8	8	7	9	1	2	9	2
2	2	9	9	8	6	1	7	8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8	6	8	7	2	9	2	8
8	9	9	8	1	2	7	6	2
2	2	7	6	9	9	8	8	1
9	1	8	2	6	7	9	2	8
8	7	2	1	2	9	8	9	6
9	6	2	9	8	8	2	1	7
7	9	1	2	2	8	6	8	9
6	8	8	7	9	1	2	9	2
2	2	9	9	8	6	1	7	8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8	6	8	7	2	9	2	8
8	9	9	8	1	2	7	6	2
2	2	7	6	9	9	8	8	1
9	1	8	2	6	7	9	2	8
8	7	2	1	2	9	8	9	6
9	6	2	9	8	8	2	1	7
7	9	1	2	2	8	6	8	9
6	8	8	7	9	1	2	9	2
2	2	9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가속화

목동 9·13단지 심의 통과 최고 49층 대단지 들어선다

준공 39년 아파트, 나란히 재건축 통과
총 7810가구… 개방형 단지로 탈바꿈

서울 양천구 목동9단지와 13단지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나란히 통과했다. 준공 39년 된 두 단지는 최고 49층, 총 781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두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와 주민공동시설, 공원 등을 조성해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개방형 단지로 재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1일 열린 제2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양천구 신정동 312번지 일대 '목동9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신정동 327번지 일대 '목동13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안을 각각 조건부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건축·경관·교육·교통·재해·환경·공원 등 7개 분야를 통합해 심사했다.

목동9단지는 양천구청과 양천근린공원에 인접하고 북측에 서울신서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공동주택 41개동, 최고 49층, 395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구역면적은 18만 3057.8㎡로 용적률 299.94%, 건폐율 19.54%가 적용된다. 최고 높이는 166.9m다.

목동13단지는 양천구청과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에 인접한 역세권 단지다. 공동주택 26개동,



목동9단지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최고 49층, 385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구역면적은 17만8919.9㎡이며 용적률 299.96%, 건폐율 20.58%가 적용된다. 최고 높이는 156m다.

특히 목동13단지는 앞선 제1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보완 의견과 지난달 열린 통합심의 소위원회 자료 결과를 반영했다. 중·저층 배치 구간의 층수를 완화하고 주동 높이를 다양화해 가로변 개방감을 확보하고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피하도록 계획했다.

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남권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재개발 무산됐던 홍제동 3곳 묶어 2520가구 재탄생

개미마을·문화마을·홍제4구역 3곳 통합
인왕산 훼손 부지 공원으로… 자연 보존

각각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등의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문화마을·옛 홍제4구역이 하나의 재개발 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는 세 지역을 통합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최고 30층, 252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인왕산 자락의 훼손된 부지 약 3만㎡는 공원으로 복원하고 기존 마을길과 자연경관은 최대한 살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홍제동 9-81 일대 주택비밀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13만4565㎡다.

이 일대는 그동안 3개 마을이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인왕산 경관 보호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제한, 낮은 사업성 등으로 사업이 잇따라 무산됐다.

서울시는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세 마을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하고 기반시설을 연계하기로 했다. 기존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포함)인 주택용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용적률 275.6% 이하를 적용해 최고 30층,



2520가구 안팎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훼손된 인왕산 자락 약 3만㎡는 공원으로 복원한다. 기존 마을의 주요 생활 동선도 최대한 유지한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세검정로4길을 살리고 홍제천과 인왕중학교, 홍제역으로 이어지는 옛길을 연결한다.

인왕산 경관을 고려해 건물 높이는 구역별로 차등화한다. 인왕산 인접부는 20층 안팎, 내부순환로변은 30층 안팎으로 계획해 인왕산 산세와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만든다.

/이현진 기자



metro

‘4세·7세 고시’ 유아 레벨테스트 사라진다 경기도, 추석 연휴 시외버스 80대 늘린다

내달 1일부터 시험·평가 전면 금지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4세·7세 고시’로 불리던 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이 전면 금지된다.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기 위해 시험이나 평가를 치를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

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영어유치원을 중심으로 퍼진 4세·7세 고시는 그동안 아동 인권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교육부에 조기 사교육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다. 올해 5월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동의 놀이·휴식 시간을 박탈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 올해 3월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은 금지되는 시험의 범위를 필기·구술·실기·면접뿐 아니라 특정 능력 검증 결과를 활용한 평가, 능력을 서열화

하는 시험까지 폭넓게 규정했다. 다만 학원이나 교습소에 이미 등록한 유아를 관찰·면담하는 방식의 진단은 예외로 허용한다. 이 경우도 보호자에게 목적과 방식을 미리 안내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과를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과외교습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유아도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하게 되면서,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 과외교습자나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지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수정 기자 korystal@

오늘부터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
귀경길 도시철도 심야 연장운행

경기도가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시외버스를 증차하고 도시철도운행을 연장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202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시외버스는 40개 노선에 차량 80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일 120회 늘린다. 시내·마을버스도 이용객이 몰릴 경우 시·군 여건에 따라 막차 시간을 최대 1시간 연장하고,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 주변에는 택시 운행도 확대한다. 도시철도는 귀경객이 집중되는 26일부터 27일까지 심

야 연장 운행한다. 의정부경전철과 5호선 하남선, 8호선 별내선은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7호선 부천구간은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도로 정체 시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주변 우회도로와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버스정보 앱과 누리집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도로의 정체 상황과 빠른길, 교통사고·도로통제 등 돌발정보는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과 모바일웹, 교통안내전화를 통해 안내한다. 도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 교량 배수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비상대응반과 지역별 상시보수 업체를 운영해 긴급 상황에 대응한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한-싱가포르 교육장관 만나 교육정책 논의

초·중등 학교제도, AI 교육 등
양국 정책, 추진 경험 등 논의

한국과 싱가포르가 교사 교류에 이어 AI·세계시민교육까지 정책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과 교육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교육장관회의에서 두

장관이 나란히 의장직을 맡은 것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의 교육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초·중등 학교제도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교육 정책 ▲전 생애주기 인공지능(AI) 교육 등 양국의 주요 정책과 추진 경험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난해 제1차 한-싱가포르 교육공동위원회를 열고, 올해는 이공계(STEM) 교사 교류도 추진하는 등 교육 분야 협력을 넓혀왔다.

최교진 장관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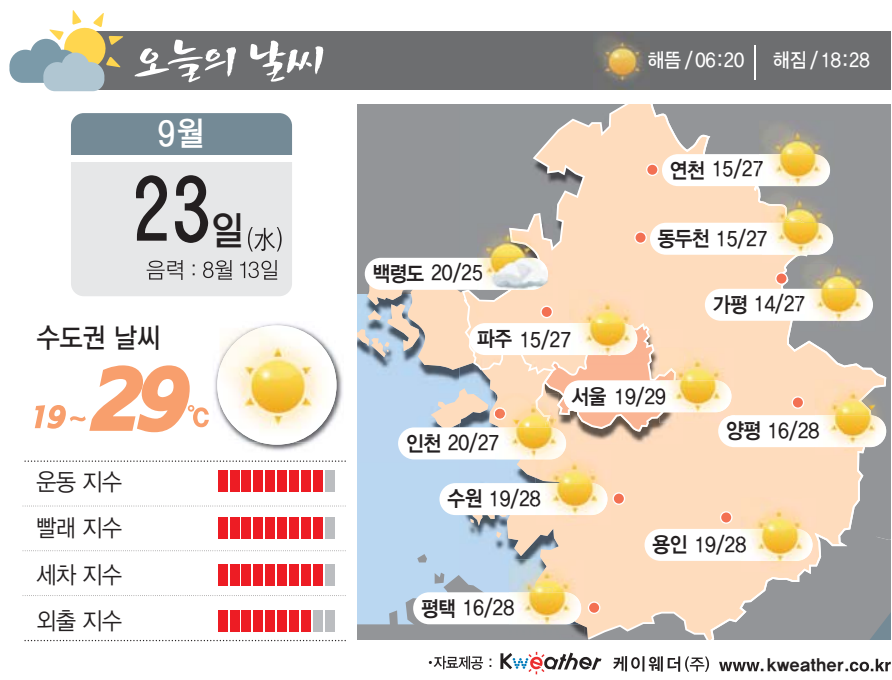


최교진 교육부 장관(왼쪽)과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

/교육부

육과 인재 양성을 국가 발전의 중요 기반으로 삼고 교육 혁신을 지속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교육정책 교류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美 “중국과 무역휴전 연장 계속 논의할 것…미 중회담서는 발표 없을수도”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서 일본·대만 책임론 꺼낼 가능성
/사진 뉴스스

▲트럼프, 취재 출입금지·보이콧 언론사들 겨냥 “3류 광대들”
▲트럼프, 예멘 대통령과 통화…후티 저지 군사지원 약속은 없어

▲룰라 브라질 대통령, 트럼프 겨냥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어”
▲NATO, 러 확전 시도 경계…발트 지역 대비태세 강화



유통업계
추석연휴 맞아
팝업·공연 펼쳐
L1

metro®

Life

F&B업계
아침시장서
돌파구 찾는다
L2



“中 투자, PER보다 정책이 키우는 ‘첨단산업’ 선별해야”

속깊은 人터뷰

안 주 희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CIO

“중국에서는 주가수익비율(PER)이 낮다고가 치수가 아닙니다. 지금 비싸 보여도 2~3년 뒤 이익이 따라온다면 그게 ‘진짜 가치주’일 수 있습니다.”

안주희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국 투자에서 익숙한 공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지, 소비가 회복되는지,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쉰지를 따져 중국 증시에 들어가기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돈줄이 부동산과 소비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제조업으로 옮겨간 만큼 이제는 ‘중국 시장’을 사는 게 아니라 ‘중국이 키우는 산업’을 골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주희 CIO는 <메트로경제>와 홍콩 현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전체 시장 인덱스와 실제 투자 기회는 다르다”며 “당분간 중국 투자는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 등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분야를 선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지수가 장기간 미국 증시처럼 꾸준히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투자 기회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과거 소비가 중국 경제성장을 주도할 당시 텐센트 등 일부 기업은 지수와 무관하게 수백씩 올랐다. 지금은 그 자리를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업이 넘겨받고 있다.

안 CIO는 “중국의 부동산이나 전반적인 소비는 여전히 약하지만 첨단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첨단 제조업만 선별해 투자한다고 해서 중국 경제의 작은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미 그쪽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딥시크가 바꾼 시선…규제의 시간이 ‘기술 자립’으로

중국 정부의 강한 규제는 오랫동안 ‘차이나 리스크’의 원인으로 꼽혔다. 부동산 규제와 빅테크 압박,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어지면서 일부 글로벌 기관투자자 사이에서는 중국 시장이 사실상 투자 불가능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분위기를 바꾼 계기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이었다. 그 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빅테크 압박을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봤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딥시크가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자 시각이 달라졌다. 부동산에 몰렸던 자금과 인재를 과학기술·첨단 제조업으로 옮겨가려 했던 중국 정부의 정책이 성과



안주희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CIO.

/허정윤 기자

“

중국 투자시장 추이와 전망 분석
딥시크 이후 中 산업정책 재평가
자금·인재 첨단 제조업으로 이동
미국과 달리 정책 일관성도 ‘장점’

中 대표지수보다 테마형 ETF 투자
반도체·AI 등 ‘성장산업’ 찾아야
로봇산업 완성품보다 부품사 주목

단순한 숫자 아닌 성장 잠재력 봐야
최종 선택 기준은 경영진의 질
장기·선제적 전략이 성과 가를 것



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안 CIO는 “딥시크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추진해 온 산업 전환의 방향과 성과가 확인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도 달라졌다”며 “과거 차이나 디스카운트나 차이나 리스크의 원인이었던 정책 리더십이 최근에는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대비되는 정책의 일관성도 재평가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모습을 보인 반면, 중국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수년간 같은 방향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중국의 계획경제와 정부 역할은 투자자에게 할인 요인이었지만 최근에는 장기적인 방향을 지키는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중국 기업의 협상력과 경쟁력을 실제로 높이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전체를 낙관적으로 봐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책 수혜가 산업과 기업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는 만큼 시장 전반보다 선택이 중요하다. 부동산이나 소비 등 기존 성장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와 컴퓨터 등 기술제품이 수출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안 CIO는 “중국 정부가 무엇을 말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기업의 이익과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지수보다 성장산업…로봇은 ‘부품’ 주목

안주희 CIO는 중국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에게 ‘중국 대표지수’ 투자보다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중국 대표지수에는 금융과 부동산 등 기존 산업의 비중이 커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수 있어서다.

비교군으로 인도는 금융과 산업재, 소비재 등 주요 업종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인덱스 투자

가 가능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다르다고 봤다. 상하이 과장판은 반도체, 선전 창업판은 산업재 비중이 높은 만큼 같은 중국 성장주 지수라도 구성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그는 “중국은 인덱스보다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 기술 자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를 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립에 투자하고 싶다면 변동성이 커져 가격이 빠질 때 조금씩 담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로봇 산업에서도 완성품 기업보다 감속기 등 핵심 부품사를 눈여겨봤다. 중국에는 약 150개의 로봇 업체가 있어 향후 전기차 시장과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업체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여러 제조사에 공통으로 공급되는 부품은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안 CIO는 “옵티머스와 보스턴다이나믹스가 운데 누가 더 잘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휴머노이드뿐 아니라 산업용 로봇에도 들어가는 감속기와 같은 부품은 완성품의 승자를 미리 고르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CIO는 중국 반도체의 성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분명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업체가 범용 메모리를 대규모로 증설하면 공급 과잉과 가격 경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는 고객사와 공동 개발 및 인증에 시간이 필요해 단기간에 공급사를 교체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중국 기업의 증설과 저가 물량 공세는 국내 메모리 업체가 경계해야 할 요소”라면서도 “현재 메모리 시장은 과거처럼 단순한 범용제품 사이클이 아니다. HBM은 고객사와의 관계와 인증이 중요해 중국 기업이 곧바로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낮은 PER, ‘저평가’ 동의어 아냐…마지막 기준은 ‘경영진’

중국 기업을 고를 때 현재의 PER만 보면 성장산업일지 수 있다고도 했다. 소비 관련 기업은 낮은 PER에도 성장 동력이 약할 수 있지만 첨단 제조업체는 당장 고평가돼 보여도 이익 전망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어서다.

안 CIO는 “올해와 내년 숫자만 보면 중국 경제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단순히 PER가 10배 아래라는 이유로 가치주라고 판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가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을 선별하는 최종 기준은 경영진이다. 안 CIO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거쳐 CIO가 된 뒤에도 기업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경영진의 질과 장기 전략”이라며 “경영진이 시장 변화를 어떻게 판단하고 얼마나 선제적으로 전략을 세우는지는 중국뿐 아니라 어느 시장에 서든 기업의 장기 성과를 가르는 요소”라고 말했다.



/홍콩=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반효진·박하준, 아시안게임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서 은메달
▲아시안게임 관중석에 ‘가짜 김정은’ 등장…현장 경찰에 제지

▲홍명보 선임 위해 허위자료 작성 혐의…정몽규·이임생 검찰 송치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부상으로 시즌 이탈…2027 시즌 복귀 전망

▲손흥민·이강인, 한국 축구 대표팀 합류… 첫 A매치 준비 박차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김 최준용, 임의계약 해지…미국행 도전 본격화